

석사학위논문

벨 에포크시대의 뽀띠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 특성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강수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벨 에포크시대의 뽀띠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 특성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연구

A Study on Hair Design Based on Characterization of Hair Style
from the Petit Bourgeois of Belle Époque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강수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벨 에포크시대의 뽀띠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 특성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연구

A Study on Hair Design Based on Characterization of Hair Style
from the Petit Bourgeois of Belle Époqu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강수희

강수희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벨 에포크시대의 뽀띠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 특성분석을 통한 헤어디자인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뷰티예술학과
헤어디자인전공
강 수 희

본 논문은 벨 에포크시대를 중심으로 뽀띠부르주아 헤어특성을 토대로 21세기 헤어디자인 견해와 헤어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견해에서 벨 에포크시대에 유사한 뽀띠부르주아 대상으로 헤어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유럽사회의 경제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였다. 르네상스이래 자본주의는 중세 말에서 18세기 말엽까지, 1850년에서 현재까지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 산업혁명과 함께 상공업 발달은 수공업에서 기계발달로 공장 활성화를 통한 기성복의 다량화와 여성들의 사회로의 진출을 통한 노동력보강으로 코르셋으로부터 해방과 가부장적 세습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여성해방 의미를 말한다. 이처럼 의식 변화는 프랑스혁명에 의한 계몽사상에 모티브를 두고 있고, 21세기 뽀띠부르주아의 자본주의로 부터 탄생과 부의 상징에서 나타나는 라이프적 생활 패턴의 흐름이 오늘날 현대뽀띠부르주아의 틀을 형성 하였다고 말해도 무방함으로 사료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풍요로워진 물질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특징적인 문예의 시대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시기를 1)벨 에포크(Bell e'poque)의 아름다웠던 시대 혹은 좋았던 시대를 의미한다. 또한 춤, 그림, 의상, 발레, 조각, 혹은 시와 음악 연극 등이 서로 어우러졌던 시대를 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벨 에포크’ 시대 뽀피부르주아의 헤어디자인 스타일 제안을 역사적 고찰을 통한 그들의 뷰티문화사를 헤어스타일의 완성에 주안점을 두었고 제1차 세계대전영향으로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코르셋으로 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인체의 자유로움과 의식 변화에서 오는 문학과 미술 표현의 배경을 두고 회화 속 인물, 패션과 헤어의 장식성 표현을 시대사 흐름으로 이해하여 현대의 패션과 헤어 이미지 연출을 창출하여 제안 하였다. 본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 고찰을 위한 자료수집으로 문헌자료 , 학술 논문, 단행본, 미용문화사, 정기간행물, 인터넷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철학사전 등을 논문의 주요자료로 참고 하였다. 뽀피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과 패션 조형성 특성과 유형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사진자료는 국내외 문헌과 패션잡지, 인터넷자료, 에스테티카, 삼성디자인넷, 개인블로그, 스타일 닷컴 등의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연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고 , 제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뽀피부르주아 발생배경과 프랑스혁명의 발생원인, 사회적 상황, 뽀피부르주아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배경을 통한 출신배경과 사회위치 상황에 취향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뽀피부르주아 헤어디자인 특성을 미술사 양식을 통한 신미술 영향을 가지고 특성을 분석하고, 회화 속 뽀피부르주아 패션과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특성별로 이미지화 하여 현대이미지 스타일과 비교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뽀피부르주아 성향별 헤어스타일 연구사례 제안을 하는데 ,제2장의 성향별 분류의 배경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들에 사회 참여 활동으로 인한 뷰티산업발전과 원인 결과를 본 연구인 헤어디자인 연구사례에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21세기 뽀피부르주아의 헤어제안을 작품화하여서 10점에 작품

1) 박연식 외(1995), 「벨 에포크시기의 건축에 나타난 심미주의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 p.223.

을 형상화 한 작품을 제작 하였다.

실제로 헤어스타일을 사람모델에게 하는 번거로움으로 헤어디자인은 마네킨에 하고, 다시 실제 20세 초반의 여성의 얼굴을 모델로 하여 헤어와 이미지를 연결하는 컴퓨터 작업으로 형상화 하였다.

앞으로 헤어연구에 기본 바탕 틀을 완성하는 헤어디자인 스타일을 변화유형 틀에서 현대 헤어이미지 변화와 창작에 모티브가 되어 21세기 미용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뽀피부르주아, 프랑스혁명, 벨 에포크, 헤어디자인, 여성해방, 패션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및 방법	4
II. 문헌고찰을 통한 벨 에포크시대의 뽀피부르주아의 발생배경과 성향유형 분류	6
II-1. 뽀피부르주아의 발생배경	6
II-2. 사회문화적 배경	10
II-3. 벨 에포크시대의 뽀피부르주아의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배경	16
3-1. 정치적 배경	16
3-2. 상공업적 배경	19
3-3. 대중적 배경	23
3-4. 귀족지행적 배경	34
3-5. 자유주의적 배경	37
III. 뽀피부르주아의 미술사조 영향을 받은 패션 및 헤어스타일의 특성	46
III-1. 벨 에포크 헤어디자인의 특성	46
1-1. 아르누보의 영향	48
1-2. 아르데코의 영향	60
1) 헤어장식의 특성	68
2) 실루엣의 특성	72

IV. 21세기 뿌띠부르주아의 헤어디자인 연구사례 제안	79
IV-1. 작품제작 및 설명	81
V. 결 론	111
【참고문헌】	114
ABSTRACT	121

【 표 목 차 】

[표 2-1] 계급 및 사회적인 범주	17
[표 3-1] 벚슬실루엣과 코르셋, 헤어장식, 장신구 유형	57
[표 3-2] 시대별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 모습과 장신구들의 유형 ..	58
[표 3-3] 벨 에포크시대 미술사조로 본 패션, 헤어의 영향에 대한 특성분석	67
[표 3-4] 파티스타일	74
[표 3-5] 탑노트스타일	75
[표 3-6] 보브스타일 분석	76
[표 3-7] 헤어스타일과 모자	77
[표 4-1] 작품1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82
[표 4-2] 근대 작품사진	83
[표 4-3] 작품2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85
[표 4-4] 현대 작품사진	86
[표 4-5] 작품3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88
[표 4-6] 근대 작품사진	89
[표 4-7] 작품4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91
[표 4-8] 현대 작품사진	92
[표 4-9] 작품5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94
[표 4-10] 근대 작품사진	95
[표 4-11] 작품7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97
[표 4-12] 현대 작품사진	98
[표 4-13] 작품8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100
[표 4-14] 근대 작품사진	101
[표 4-15] 작품9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103
[표 4-16] 현대작품사진	104
[표 4-17] 작품10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106

[표 4-18] 근대 작품사진	107
[표 4-19] 작품11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109
[표 4-20] 현대작품사진	110

【 그림 목 차 】

〈그림 2-1〉 제3신분 계층을 풍자한 그림	7
〈그림 2-2〉 물랑루즈	14
〈그림 2-3〉 잔 아브릴	14
〈그림 2-4〉 캉캉	15
〈그림 2-5〉 무희	15
〈그림 2-6〉 모자상점	15
〈그림 2-7〉 여성용 의상가게	15
〈그림 2-8〉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20
〈그림 2-9〉 생라자르역	20
〈그림 2-10〉 1900년 파리만국 박람회	24
〈그림 2-11〉 레스토랑	24
〈그림 2-12〉 레스토랑	25
〈그림 2-13〉 몽테스키외	25
〈그림 2-14〉 카페콩세르	28
〈그림 2-15〉 앙바사되르	28
〈그림 2-16〉 19세기 도시민의 파리	29
〈그림 2-17〉 무희희극과 오페라 케리컬처	29
〈그림 2-18〉 백화점 포스터	31
〈그림 2-19〉 백화점 포스터	31
〈그림 2-20〉 유제니 황후	36
〈그림 2-21〉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회화의 표현	39
〈그림 2-22〉 삶과 죽음	40
〈그림 2-23〉 내 슬픔을 등에 이고 가는 자	40
〈그림 2-24〉 살로메	40
〈그림 2-25〉 악의 꽃	40
〈그림 2-26〉 신과 같이	40
〈그림 2-27〉 주술	40

〈그림 2-28〉 승마복	45
〈그림 2-29〉 블루머	45
〈그림 2-30〉 테일러드	45
〈그림 2-31〉 수영복	45
〈그림 2-32〉 자전거	45
〈그림 2-33〉 테니스	45
〈그림 3-1〉 19세기 근대헤어스타일	47
〈그림 3-2〉 1910년 스파이럴	47
〈그림 3-3〉 소프트풍파두르	47
〈그림 3-4〉 1920년 크로키롤 와인딩	47
〈그림 3-5〉 실루엣	50
〈그림 3-6〉 헤어장식	50
〈그림 3-7〉 패션, 헤어	50
〈그림 3-8〉 패션, 헤어장식	50
〈그림 3-9〉 실루엣	50
〈그림 3-10〉 데이지꽃	51
〈그림 3-11〉 상프누와 인쇄	51
〈그림 3-12〉 기다림	51
〈그림 3-13〉 클림트	51
〈그림 3-14〉 잔느아브릴	51
〈그림 3-15〉 테일러드 슈트	52
〈그림 3-16〉 스포츠 의복	52
〈그림 3-17〉 1900년 건강 코르셋	53
〈그림 3-18〉 배에단 바스크를 직선으로 복부까지 평평함	53
〈그림 3-19〉 빅토르 오르타의 건축적 곡선	55
〈그림 3-20〉 곡선의 헤어	55
〈그림 3-21〉 입맞춤	55
〈그림 3-22〉 S실루엣	56
〈그림 3-23〉 모자장식	56

〈그림 3-24〉 주름장식	56
〈그림 3-25〉 칸딘스키	61
〈그림 3-26〉 몬드리안	61
〈그림 3-27〉 입체적	62
〈그림 3-28〉 자연스러움	62
〈그림 3-29〉 기하학적	62
〈그림 3-30〉 자연스러움	62
〈그림 3-31〉 직선적	62
〈그림 3-32〉 곡선적	62
〈그림 3-33〉 이브닝 드레스	63
〈그림 3-34〉 옴파이어 드레스, 동양성	63
〈그림 3-35〉 하렘팬츠	64
〈그림 3-36〉 호블 스커트	64
〈그림 3-37〉 기모노	64
〈그림 3-38〉 미나렛 원피스	64
〈그림 3-39〉 트레머리	66
〈그림 3-40〉 풍파두르, 마담풍파두르	66
〈그림 3-41〉 엘리자베스 테일러	66
〈그림 3-42〉 이사도라 덩컨	66
〈그림 3-43〉 페그탑	69
〈그림 3-44〉 헤어장신구	69
〈그림 3-45〉 오리엔탈	69
〈그림 3-46〉 보석장식	70
〈그림 3-47〉 입체적 효과	70
〈그림 3-48〉 장식성	70
〈그림 3-49〉 보석장식	70
〈그림 3-50〉 르네랄리크	70
〈그림 3-51〉 보석장식	70

〈그림 3-52〉 헤어장식	70
〈그림 3-53〉 헤어장식	70
〈그림 3-54〉 헤어장식	70
〈그림 3-55〉 아라베스크문양	71
〈그림 3-56〉 웨이브반복	71
〈그림 3-57〉 웨이브	71
〈그림 3-58〉 1920년	71
〈그림 3-59〉 1920년	71
〈그림 3-60〉 1920년	71
〈그림 4-1〉 테일러드슈트를 입은 상류층 여성	82
〈그림 4-2〉 매트르 폴리탄	83
〈그림 4-3〉 근대작품1 정치적 배경의 근대 매니시 스타일	85
〈그림 4-4〉 현대작품1 정치적배경의 현대 매니시 스타일	86
〈그림 4-5〉 상류층여성의 초상화	88
〈그림 4-6〉 아르누보 건축물	89
〈그림 4-7〉 근대작품2 자유주의적 배경의 근대 보헤미안 스타일	91
〈그림 4-8〉 현대작품2 자유주의적 배경의 현대 보헤미안 스타일	92
〈그림 4-9〉 상류층 여성의 초상화	94
〈그림 4-10〉 아르누보 미술양식	95
〈그림 4-11〉 근대작품3 상업적 배경인 근대 소피스티케이트 헤어스타일	98
〈그림 4-12〉 현대작품3 상업적 배경인 현대 소피스티케이트 헤어스타일	98
〈그림 4-13〉 상류층 여성의 헤어스타일	100
〈그림 4-14〉 키스	101
〈그림 4-15〉 근대작품4 대중적 배경인 근대 모던스타일	103
〈그림 4-16〉 현대작품4 대중적 배경인 현대 모던스타일	104
〈그림 4-17〉 상류층 여성의 초상화	106
〈그림 4-18〉 포스터	107
〈그림 4-19〉 근대작품5 귀족지향주의 배경인 근대 로맨틱스타일	109
〈그림 4-20〉 현대작품5 귀족지향주의 배경인 현대 로맨틱스타일	110

1 .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7세기 이래 강대한 무력에 전체적인 기초를 굳혀온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왕권은 18세기에 와서 점차 타락하여 루이14세 때부터 재정난에 시달려 오다 루이16세에 이르러 파산직전에 이르게 된다. 국고의 고갈을 시민계급의 재력으로 끌어낼 목적이었으나 소수의 특권계급은 특권을 누리고 시민과 농민의 차별대우를 받자 이에 반발을 느껴 1789년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수를 들고 대혁명이 일어났다.

3)프랑스혁명은 전형적인 시민혁명(Bourgeois Revoltion)으로서 그 근본원인은 앙시앵레짐, 즉 혁명전의 프랑스사회인 성직자와 약 40만정도의 귀족이 제1,2 신분을 구성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제3신분이었다. 제3신분 속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부터 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러 계층이 포함 되어있었다.

부르주아의 기원은 성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뷔르거(Burger)가 기원이며 직업별로는 부유한 상인, 법률가, 수공업 등의 도시민을 일컫는 의미이다. 근대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계층으로 자본가 계급을 말한다.

이는 4) 대혁명 직 전에 사회적 틀은 여전히 귀족적인 채로 남아 있었으며 토지 소유제는 아직도 봉건적 구조로 봉건적 부과 조세들과 교회의 십일 조세는 농민층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이었다.

구체제의 모순은 봉건적 반동으로 특권층은 정치적으로는 국가와 군대, 교회의 모든 고위관직을 독점하려는 경제적으로 봉건적 영주제를 강화하고 있었다. 영주권이 열거되어있는 토지대장을 갱신하여 효력을 상실한 낡은 특권들까지 갱신시키며 농민들을 위협하는 개인적 권리의 침해를 자행하기 까지 했다.

결국 프랑스혁명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이며 독재를 몰아낸 봉건 재적 잔재를 청산한 근대 민주주의의 발원지로 여겨져 왔고 새로운 질서를 위한

2) 광형심 외(2003), 『미용문화사』, 서울: 청구문화사, p.197.

3) 민숙홍 외(2006), 『세계문화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 pp.348-349 .

4) 이세희(2004), 『프랑스 혁명사연구』, 서울: 부산대학교출판부, p.120.

인권권리선언을 만들어냈다. 즉 구제도의 폐지는 프랑스혁명에서의 계급의 평준화로 평민에서 아무런 구별이 없는 제3신분에 포함 되었지만 수효의 96%가 모두 다 제3신분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인 제3신분은 사회적인 것이었고 혁명의 주요한 혜택의 대상은 부르주아였다.

따라서 구제도의 모순에 반기를 든 시민혁명은 농노신분에서 자유로워지는 몸은 되었지만 생산물지대에서는 실질적인 봉건적 공납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은 봉건적 반동이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한편⁵⁾ 금융 및 상업의 대(大)부르주아는 파리나 대도시 신지구(新地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이 상층 귀족과 다른 점은 오직 혈통뿐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르주아 생활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 그들은 반드시 부유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류층부르주아들은 귀족계급을 부러워하였고 귀족에 대한 소원을 품어왔다. ⁶⁾ 집안의 역사가 오랜 부르주아는 무엇보다 그들의 가계(家系)를 자랑으로 여겼으며 신분이 낮은 사람과의 결혼을 기피하였다. 관직과 직업의 차이는 그들 사이에 계층 제를 형성시켰는바 그들은 이에 집착하였다. 계급간의 위계질서에 민감한 정신적 풍토는 더더욱 부르주아 인물들의 신분상승 열정을 가속화 시킨다.

금융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법률가, 의사, 문필가 등 자유업에 종사하고 재력과 권력을 소유하는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이는 부르주아들의 계급적 분류로서 봉건적 잔재로 인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자본주의 발달이 저해되었고 또한 귀족 못지않은 생활을 향유하고 귀족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귀족이 되는 문은 좁기만 하였다. 이에 생활이 어려운 수공업자는 자본주의의 발달에 압력을 받는 도시의 소시민층인 뽀띠부르주아가 있었다.

혁명이 변화를 일으킨 1900년에서 1910까지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와 자신에 찬 진보적인 시대로 전기, 자동차, 비행기에서부터 일용품까지 여러 가지 발명품이 인간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주었고 신흥부자를 생겨나게 하였으며 중산계급도 생겨나 인구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파리민국박람회, 발레리나 이사도라 덩컨으로 인한 의상의 발전과 예술의 장식인 ‘아르누보’의 태동은 전

5) 미셸보벨(1992), 『왕권의 몰락과 프랑스혁명』, 최갑수 외 옮김, 서울: 일월서각, p.73.

6) 상계서, p.74 .

반적인 예술과 패션에 많은 영향을 준 시기였다. 또한 밤 문화가 번성하던 시기의 물랑루즈의 등장은 카바레, 댄스홀, 뮤즈홀, 술집등 번성하게 하였다. 7)근80년 동안 혁명과 폭력, 정치적인 격동기를 치른 후에 평화와 본영을 구가하던 1890-1914년에 일는 기간을 아름다운 시절 ‘벨 에포크’라 칭한다.

그러므로 프랑스혁명은 인권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혁명이기도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이시기의 여성들도 같이 세속적인 가부장적 세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의 혁명이기도 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인력 보강을 위한 여성들에 사회 참여는 첫째, 코르셋 해방으로 인한 의복 간단성을 말해주고 둘째, 사회 참여권을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셋째, 여성들에 사회참여는 뷰티산업 발전을 가져왔으며 21세기를 압도하는 정도로 우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문학과 예술 발달은 사상과 자유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발전성과 이국성의 동경을 보여주므로 개방 흐름과 멀티적인 관계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뽀띠부르주아 발생 배경을 알아보고 둘째 ,사회, 문화, 그들에 라이프 생활사를 통한 상황에 따른 패션 헤어이미지 연출을 통한 디자인 과 실루엣의 오브제 표현구사를 살펴보고, 셋째, 세기말의 뽀띠부르주아 패션 , 헤어스타일을 통한 근대적 감각에서 현대적 감각에로의 흐름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21세기 뽀띠부르주아 헤어디자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7) 김복래(2004), 『파리혁명과 예술의 도시』, 서울: 살림, p.35.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벨 에포크’ 시대의 뽀피부르주아 헤어 디자인 스타일 제안을 그들에 역사적 고찰을 통한 계급의 평준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그들에 라이프생활사를 통한 상황 중심으로 그들에 뷰티문화사를 헤어스타일에 완성하는 주안점을 두었고,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들에 사회진출로 인한 여성들에 해방은 코르셋으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인체의 자유로움과 의식 변화에서 오는 문학과 미술표현의 배경을 두고 회화 속 인물의 패션과 헤어 장식성 표현을 시대사 흐름으로 이해하여 현대 패션과 헤어 이미지에 연출을 창출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내용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뽀피부르주아 발생배경인 시대사를 고찰하고 발생 원인과 프랑크혁명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경제적 이득과 계급 상황에 동태를 살펴보고, 뽀피부르주아 라이프 스타일 유형별 배경을 통한 출신배경과 사회 위치를 통한 취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뽀피부르주아 헤어디자인 특성을 미술사 양식을 통한 신 미술 영향을 가지고 특성을 분석하고, 회화 속 뽀피부르주아 패션과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특성별로 이미지화 하여 현대이미지 스타일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뽀피부르주아 성향별 헤어스타일 연구사례 제안을 하는데 있어서, 본문의 Ⅱ장의 성향별 분류 배경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본문의 주요내용인 여성들 사회 참여의 활동으로 인한 뷰티산업발전과 원인 결과를, 본 연구의 헤어디자인 연구사례에서 현대 감각으로 다시 재해석하여 21세기 뽀피부르주아 헤어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Ⅴ장에서는 Ⅱ,Ⅲ,Ⅳ의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간의 시대적 특성 유형에 따른 헤어이미지연구가 앞으로 시대사를 이해하고 그 시대적 특성과 성향, 취향 변화는 언제나 시대별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변화를 예고하는 출발의 기원 이라고 볼 수 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연구의 고찰을 위한 자료수집으로는 문헌자료, 학술 논문, 단행본, 미용문화사, 정기간행물, 인터넷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철학사전 등을 논문의 주요자료로 참

고 하였다, 뽀피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과 패션에 조형적 특성과 유형별 분석을 하는데 사용한 사진자료는 국내외 문헌과 패션잡지, 인터넷자료, 에스테티카, 삼성 디자인 넷, 개인 블로그, 스타일 닷컴 등의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연구 분석 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뽀피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헤어에 투영되어 나타난 양상을 유형화하여 작품으로 표현 하였다.

Ⅱ. 문헌고찰을 통한 벨 에포크시대 삐띠부르주아의 발생배경과 성향 유형별 분류

Ⅱ-1. 삐띠부르주아 발생배경

1789년 7월 14일부터 1789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전 국민이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일어난 넓은 의미의 혁명이다.

8) 부르주아의 기원은 농민이었으나 끊임없는 발전으로 말미암아 농민층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중구(中歐)나 동구(東歐)에서는 농민들이 토지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라도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농촌과 도시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었다. 18세기에는 변호사, 의사, 금리생활자(金利生活者), 상인 등 부르주아는 기타 주민들과 유합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혁명을 지도할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혁명의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에 의한 신분제의 불만이였다.

9) 앙시앵 레짐은 가장 부유한 부르주아로부터 가장 가난한 거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민을 아무런 구별 없이 제3신분에 포함시켰는데, 시에스에 의하면 그 수효는 96%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제3신분이란 순전히 법적 인 존재였고 그 유일한, 또한 현실적 요소는 사회적인 것이였다.

8) 미세보벨, 최갑수 외 옮김, 전계서, p.64.

9) 상계서, p.64.



〈 그림 2-1 〉 10) 제3신분 계층을 풍자한 그림

〈그림2-1〉의 제1신분은 성직자 계급이며 프랑스 전체에 인구 2700만명 중 10만 명 이었고 독자적 성직자 회의와 특수 법정을 가진 조직체 구성으로 면세특권, 전국토의 1/10을 소유하였다. 고위 성직자는 귀족이었고 사제나 대다수 수도사 등 하위 성직자는 평민 이었다. 제2신분으로는 귀족계급으로 약40만 명이었고, 토지의 1/5를 소유하였다. 대귀족은 출생에 의한 혈통 귀족으로 법복귀족의 부유한 부르주아가 관직을 매입, 고등법원 등 법관직이 매우 많았다. 대귀족의 사치와 낭비는 수입이 적어지고 귀족은 신분의 특권에 집착하여 공납을 올리고 평민들을 힘들게 하였다. 제3 신분으로는 평민으로 제1, 제2신분을 제외 하고는 프랑스 전체를 지칭한다. 이 중 제3신분의 대다수가 농민으로 일찍이 농노 신분에서 해방이 되었던 대다수가 토지를 소유하고 자본가적 농업경영, 중산층의 자영농, 소규모의 소작농과 영세농으로 농업노동자로 분류한다.

11)1774년 루이16세가 왕위에 즉위하였을 때 이미 프랑스의 재정은 도탄의 지경에 빠져있었다. 농민들은 구제도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귀족들은 개혁을 시도하려는 국왕을 혐오해 마지않았다.

10) 루이 15세, 루이 16세 치세기에 튀르고, 네케르 같은 재무 총감들은 귀족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귀족의 아성인 고등 법원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기원, 『프랑스 사, 2005.8.1, 미래엔 출판사』 (본 출처:<http://terms.naver.com/> 참조)

11) 김복래, 전계서, p.23.

그만큼 귀족들은 개혁을 원하지 않았고 사회의 변혁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한편 루이14세 이후의 경제의 재정난은 결국 루이16세 때에 혁명이라는 커다란 사건을 발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12)1788년 여름에 발생한 기록적인 흉작, 1788-1789년 겨울의 혹한, 1786년 맺은 영국-프랑스 무역협약을 계기로 값싼 영국공산품이 프랑스시장에 범람한 상황 등은 빵 값의 폭등, 기아, 실업률의 증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졌다. 13)18세기에 물가가 65%상승, 지대가98%상승, 임금은 22%밖에 오르지 않는 등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더하여 도시의 민중이 분노하고 있었다. 1789년 진퇴양난에 빠진 루이16세는 결국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삼부회를 소집하였다.

삼부회는 각 신분의 입장을 제1신분은 하위성직자가 대표의3/2를 차지하고 제2신분인 14)귀족은 과거에 상실했던 정치권력의 확보에 의한 절대왕정에 제약을 가하였으므로 귀족정치를 실시하려 하였다.

7월14일 파리의 민중들이 전제정치와 압제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자 프랑스 도처에서 농민들이 합세하여 영주들의 성을 공략하고 방화하였다. 프랑스 혁명은 민중이 개입한 민중의 첫 승리였다고 보여 진다.

15)프랑스 대혁명은 앙시 앵 레짐<구체제>의 신민을 자유국가에 시민으로 변모시키려하였고, 당시 시민이라는 단어는 정치 담론에서 루소가 재검토하고 이상화하며 고대시민의 덕성을 상기시키므로 이 단어는 일상생활 용어가 되기도 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6조, 다시 말해서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입법에 참여하고 그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그 원칙의 작용을 보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인권선언문으로 전문 17개조, 자유, 평등, 주권 등을 혁명 원리 및 이념 운명이라 하였다.

16)1791년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를 위시한 대불연합군은 폭동에 가담한 시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프랑스 주위를 집결하지만 주도자인 로베르스피에르와 공안위원회가 이끄는 급진적 자코뱅당이 국정을 장악하여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자코뱅당은 왕정을 폐지하고 루이16세와 마리앙트와네트 왕비를 처형하였다.

12) 채민정(2010), 「프랑스혁명과 여성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7.

13) 김복래, 전계서, p.24.

14) 미세보벨, 최갑수 옮김, 전계서, pp.105-115.

15) 마리 크로드쇼도느네 외(2000), 『공화국과 시민』, 이영목 옮김, 서울: 창해출판, p.75.

16) 김복래, 전계서, pp.25-26.

그리고 1789년11월 군대의 쿠데타로 총재정부가 무너지므로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가 시작 되었으며 프랑스혁명은 끝이 났다. 프랑스혁명의 전형적인 시민혁명으로 정치적인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시민계급의 권력을 평등한 근대시민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따라서 이념성으로는 계몽사상에 승리로 인간의 이성판단에 대한 믿음과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이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사료된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인 프랑스혁명은 신민계급의 부르주아였으며 반대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은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이 아닌 과거 신분 특권의 해체 후 구 자리를 부르주아에 새로운 지배계급이 차지하고 인권선언문에서 모든 시민이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한 법 형성 참여는 재산 제한 선거제를 통한 정치 계급을 규정, 평등을 누릴 수 있고, 신분에 의한 특권이 재산에 의한 특권으로 대체하는 등 계급에 의한 특권층의 혜택은 말 그대로 혁명 이념과 소권을 대체하는, 계급과 특권층 혜택은 말 그대로 혁명 이념인 소위 하위 층들을 위한 모든 이들에 평등이 아닌 특권층들 만에 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영향에 의한 권리 행사였다고 생각 된다. 이 중 제3신분인 부르주아는 산업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발달로 부를 축척하게 되는데 영국 산업 발달은 프랑스 상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러므로 소외계층인 부르주아 소위 뽀띠부르주아는 생산의 증대를 늘리기 위해서 판로의 개척을 하여 자본의 축척을 늘리면서 상류층지향주의를 추구한다.

이로써 뽀띠부르주아에 활발한 활동 시기와 소외계층이었던 뽀띠부르주아 발전과 부에 창출 판로의 개척을 발휘 하게 된 계기에 시작점은 프랑스혁명 시작과 동시에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발달이 그들을 만들어낸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된다.

II-2. 사회 문화적 배경

17) 계몽주의의 딸인 프랑스혁명이 신권 왕정에 반대하는 방법은 신생 미합중국에의 예처럼 인간 자연권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길 밖에 없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은 입헌 왕정 지지자들의 작품으로서 공화국 수립보다 앞서 향해졌다. 다른 한편 이 ‘인권선언’은 그것이 보여준 철학적,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공화국보다 상위의 것이며 또한 그 점이 인권선언을 미국 선언과 확실히 구별하게 해준다. 18) 한편 프랑스혁명은 혁명역사는 물론이며 그 밖의 다른 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변화를 유발 하였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민중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즉각적 반응을 보였고 자기나라의 사회악과 정치적 모순들을 개혁하고자 많은 시도를 지속적으로 되풀이 하였다. 19세기를 통한 구질서를 고수하여 수구파와 새로운 이념을 통하고 지역에서 혁명의 승리를 하였다. 당시 프랑스혁명이 내세운 자유, 평등, 박애의 표어는 오늘날도 여전히 정치, 사회, 철학으로서 문학사의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는 민주주의 체제 이념으로 속속히 나타나고 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사이에는 유럽사회의 경제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였다. 자본주의와 중세 말부터 18세기 말엽까지의 산업자본주의로, 18세기말에서 1850년 까지는 산업자본주의로 이후부터는 현재까지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 19) 상업자본주의를 배경으로 산업혁명은 자본주의로 과학혁명의 진전과 더불어 가속화 되었고 현대인의 물질적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반면에 초기 자본주의가 발달하여서 개인 기업으로의 활동의 자율을 누림으로 상공업자와 금융업자 등 기업가 계층이 정치, 사회적 활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 혁명 이후의 경제적 자유 원칙수립과 산업혁명 전개는 자본주의와 기업 중심의 경제 자유의 원칙수립과 산업혁명 전개는 자본주의와 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에 큰 전개를 마련하였다. 제1차 산업혁명은 1880-1860년 사이 석탄, 증기

17) 김복래, 전게서, p.82.

18) Vg. L. Gershoy(1972),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Studies』, London/New York, S3.

19) 정홍숙(1995),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6.

20) 북만경(2003), 「산업혁명기 프랑스 기술교육」,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2 .

기관, 철도, 제철업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제2차 산업혁명은 1880-1914년 사이에 전기, 자동차, 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풍요로워진 물질 토대시기를 특징적인 문예 시대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 시기를 21)벨 에포크 <Bell E'poque>의 아름다웠던 시대 또는 좋았던 시대를 의미한다. 춤, 그림, 의상, 발레, 조각, 혹은 시와 음악 연극 등이 서로 어우러졌던 시대를 말한다.

22)벨 에포크<Bell E'poque>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시작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체로 후대의 사람들은 양차 대전의 비극에서부터,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이전 시기의 평화와 번영을 회고 하고 붙인 이름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정의는 오늘날 까지도 유보되고 있다. 하지만 벨 에포크는 일단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던 시기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열광하던 대 변혁의 격동기라고 할 수도 있다. 1789년프랑스 혁명 후 들 끓었지만 17세기부터 문화 고양 작업이 효과적으로 지속되어 수도 파리는 서구에서 제일 화려한 문화도시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다.

23)즉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 전환기에서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의 문화가 그 화려한꽃을 피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 자체에 내재된 모순들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예술과 문학의 가능성을 예시해 주던 시대가 벨 에포크시대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와 환란의 시대를 경험한 프랑스는 창의적이며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배출과 함께 새로운 세기로의 변화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기계와 과학의 힘으로 삶에 개선과 질적 향상 풍요는 다시 자연스러움에 원초적적인 본능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에 신 미술인 24) 아르누보<Art Nouveau>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기계문명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유럽에서 대단히 번성하였던 새로운 미술양식으로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디자인 흐름을 지배했던 신 고딕양식, 신 르네상스양식 등의 역사적인 양식으로부터 탈피한 과도기적 장식미술 양식이다.

21) 박연식 외(1995), 「벨 에포크시기의 건축에 나타난 심미주의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발표논문, p.223.

22) H. H. 에너슨(1997), 『현대미술사』, 장화진 옮김, 서울: 형설출판사, p.87.

23) 자세한 내용은 박연식 외, 전제논문, p.223.

24) 김은정(2007),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성연구」, 한국조형예술학회, p.8.

25) 18세기 말부터 시작한 산업혁명과 기술의 진보는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달한 합리주의로 유럽 전역에 기계 혁명을 일으켰다. 이 시기에는 장인 수공업의 귀족적인 예술이 대량 생산되어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고 진정한 예술가들은 수공예와 중세장인 세계를 동경하며 미술과 공예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아르누보가 시작 하게 된 기틀이 되었다.

한편 산업혁명과 급속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기계문명에 발달과 생산성 향상으로 귀족계급대신 신흥부르주아 계층을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자본주의사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26) 19세기말에는 세기말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으로 파괴된 예술성과 미의 회복을 목적으로 수공예 혁신을 목표로 하는 미술공예 운동이 대두였다. 27)이 새로운 미술은 결코 어느 한 건축가나 화가, 디자이너 또는 어느 그룹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나름대로 역사주의를 종결 시키고자 힘쓴 결과였다. 28)미술가인 모리스가 가장 불만스러워 했던 점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감수성을 둔화시키는 값싼 대량 생산의 늪에 빠지게 됨으로 삶 자체는 천박해졌다고 주장 했다. 그러므로 29)아르 누보는 전통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했으며 건축, 가구, 제품, 패션, 그래픽 등의 생활환경 전반에 적용하고 기여했다는 점에서 현대디자인 문을 연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양식이다.

예술에 세계에서는 세잔<P.Cezanne>, 고흐 < Googh >의 표현주의 운동이 일어났으며 뒤샹<Duchamp>, 에른스트<Ernst>등은 가장 극단적인 표현주의로 다다이즘 미술양식을 펼쳤다. 피카소<Picasso>와 브라크<George Braque>는 입체파 양식을 발전시켰고 현대미술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미술 발전은 사회적으로도 과학 발전으로 경제적인 면에 많은 이득이 발생 하였다. 30)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일고, 과학의 진보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로 톰슨<Tomson>의 원자설과 아인슈타인<Einstein>

25) 장순찬(1985), 「아르누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2.

26) 강정아(2010),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27) 김경은(2007), 「아르누보 양식을 이용한 식물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8.

28) 자세한내용은 장순찬, 전개논문, p.10.

29) 자세한내용은 김은정, 전개논문, p.10.

30) 나은선(2009), 「벨 에포크시대 패션 이미지에 따른 웨딩드레스 스타일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5.

의 상대성 이론<Theory of Relativity>을 비롯한 각종 과학 이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모든 가치기준은 새로움으로 통하여 놀라운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과학의 세기>라고도 하였다. ³¹⁾ 과학과 기술의 눈부신 발전, 자본주의의 물질적 문화와 정치적 안정, 이와 더불어 19세기를 특징짓는 기계문명에 대한 불안과 회의의 사조는 깊어지고 세기말<Fin de Siecle>이라는 데카당트의 시대, 퇴폐와 향락과 에로티시즘을 동반하는<Bell e'poque>이것이 아르누보 배경이며 동시에 성격이 된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Wright Brothers>가 하늘을 날았고 1908년 헨리포드<Henry Ford>는 티-포드 모델 자동차를 개발하였고 새로운 자동차를 타기 위한 먼지락이 덧옷이나 베일로 가려진 모자 등 새로운 패션이 나타났고 1913년 헨리포드에 의한 자동차 공정을 거친 자동차가 생산이 되었는데 이는 대량생산, 사회적 혁신을 가졌고 의료기술 발전으로 기성품 생산이 가능한 수요 증가로 인한 백화점 등장으로 종류층 증가를 가져왔다. ³²⁾ 산업의 발전이 발전함은 그에 따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자와 여성들이었다. 물질 세계에 향락과 예술 도시로 세계무대 중심지이며 밤의 화려함으로 유명한 파리의 몽마르트에 <물랑루즈<moulin-rouge>>가 오픈하고 물랑루즈를 대표하는 캥캥춤은 벨 에포크시대 대표적인 상징이 된다. ³³⁾ <그림2-2>스커트를 들어 올리고 도발적으로 춤을 추는 캥캥 댄서들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림2-4,5> 코르셋과 페티코트의 신체를 구속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당시에 프릴과 레이스가 많이 달린 스커트를 걷어 올리고 에로틱한 춤과, 캥캥 무희의 의상은 당시의 귀부인들에 입담에서 오고가는 새로운 스타일로 그 시대 트렌드를 말하고 있으며, 상류사회 귀족들과 예술가들, 여배우들 개인에 개성과취향을 반영한 뷰티의 아름다움은 그 시대의 패션 리더에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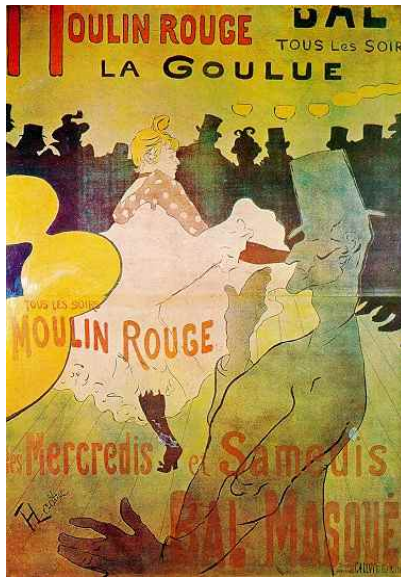
³⁴⁾ <그림2-6,7>은 이들과 더불어 상류사회와 예술가들의 사교장이고, 문예를 다루는 살롱을 주최하는 구 귀족들이나 부르주아 부인들도 패션의 리더 역할을 하였고, 패션 디자인도 예술의 시대를 맞아 예술과 패션의 결합, 패션은 시대를 대표하는 생활 조형으로 예술의 영역으로 더불어 가기 시작 한다.

31) 이순홍 외(1999),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양식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44권, p.239.

32) 조수연(1990), 「벨 에포크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6.

33) 자세한내용은 장순찬, 전개논문, p.43.

34) 자세한내용은 장순찬, 상계논문, p.44.



〈그림2-2〉³⁵⁾ 물랑루즈



〈그림2-3〉³⁶⁾ 잔 아브릴

35) <http://blog.naver.com/lcyng2005/20068665257>

36) <http://blog.naver.com/lcyng2005/20068665257>



〈그림2-4〉³⁷⁾ 강강



〈그림2-5〉³⁸⁾ 무희



〈그림2-7〉³⁹⁾ 여성용의상가게



〈그림2-6〉⁴⁰⁾ 모자상점

37) <http://blog.naver.com/spsp1129/20185027060>

38)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원본출처: 국립현대 미술관

39) 네이버 미술지식검색, 원본출처: 오르세 미술관 소장

40) 네이버 미술지식검색, 원본출처: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II-3. 벨 에포크시대의 뽀띠부르주아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배경

3-1. 정치적 배경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사회의 기본질서였던 절대주의 체제와 계급사회가 붕괴되고 억압받았던 시민계층과 농민들은 왕과 귀족 및 성직자의 부패와 타락을 규탄하며 자유와 평등, 박애와 인간존엄성이 혁명의 이념이다.

41) 우리는 사회를 관찰함에 있어서 편의상 그 사회의 성원을 그들이 점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몇 개의 범주로 구획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사회를 몇 개 범주의 중첩적 구조로 파악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한 사회를 성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몇 개 층의 범주로 구획할 때 그 각각의 범주를 계층이라 한다. 계급이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직업, 신분, 재산 등에 따라 구별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 하고 계급과 계급사이에는 서로를 구획하는 명확하고 단절되고 경계선이 확실 하다고 생각한다. 계급간의 지배, 복종 등 복잡한 사회관계가 내재되어 있고 그들은 통상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회학자인 42) 베버는 현대 현대사회에 크게 세 가지의 사회 계급분석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본가 계급, 육체노동자계급,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계급으로 이 계급은 다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전문가기술직과 뽀띠부르주아 층으로 구분된다. 부르주아의 지배를 받는 소규모의 고용주로 자본주의하에 종종 정치적 억압을 받는 계층이다. 43) 계급분석학자인 맑스는 계급적 분석을 물질적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착취를 말한다고 보았다.

41) 김채운(1995), 『사회계층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pp.36-37.

42) 홍두승(1993), 『사회 계층, 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pp.44-45.

43) 고용복(2009), 『사회학사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86-87.

[표2-1] 44)계급 및 사회직업 범주

계급	계급분파들	사회-직업범주들
상층계급 또는 지배계급	지배분파 1.구부르주아 2.신흥부르주아 3.피지배분파	상공업경영자, 자유업, 상급관리직(공기업, 관청, 사기업관리직), 교수(중등교육, 고등교육), 상급기술직, 예술제작자
중간계급	신흥쁘띠부르주아 상승 뿌띠부르주아 구 뿌띠부르주아	공예장인, 의료보건 서비스직 종사자, 문화매개자, 일반관리(판매계통, 사무계통) 사무노동자(사무원, 상점원), 일반기술직, 초등교사 장인, 소상공, 중소기업경영자
민중계급	생산노동자 소 농업경영자	숙련공, 단순기능공, 단순노무자, 직공장, 자영농
	소 봉급생활자	파출부, 농업노동자

한편, 구별짓기의 저자 삐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행위자들이 가지는 취향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스스로의 경험과 생활 속에서 획득, 후천적 성향으로 본다. 취향은 객관적 계급위치의 사회적 위계를 반영하는 문화적 위계로 조직화되기 때문에 취향들 사이의 갈등은 계급갈등으로 간주 된다.

45)역사상에 발생한 여러 형태의 계급대립을 지닌 경제적 사회구성원체 에서는 두개의 주요한 계급이 존재하였고 대립해왔다. 그러나 어느 사회 구성원체 에서나 이들 두 계급 이외의 생활자가 존재했으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생활자 집단은 중간계급을 이루어 왔다.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할 때 자본가 계급으로 부상했다. 현재문제가 되는 중간계급은 뿌띠부르주아 계급으

44) 원문그대로, A.Accardo et P.corruff, La .sociologie de Bourdieu, Editions Le Mascaret Bordeaux,1986, pp224-225.에서 재구성 『삐에르부르디외, 구별짓기 상』, p.15.

45) 임석진(2009), 『철학사전』, 서울: 중원문화, p.843.

로 이것은 농민, 수공업자, 소상공인 등의 독립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운이 따르면 자본가 계급으로 부상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 계급으로 되는 중간적인 생활자이다. 46) 중간계급은 부정확하지만 영미권의 대중문화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유럽 대륙에서 부르주아라는 용어와 더불어 폭넓게 쓰인 용어이다. 노동계급 즉 육체노동자와 상위계급은 대자본가와 엘리트 사이에 놓여 있는 계급이다. 상위계급의 크기는 작고, 전체인구에 계급으로 구분할 때 중간계급은 노동자계급과 다르게 나뉘지는 모든 비 육체노동을 가리킨다. 47)마르크스는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이 필연적으로 대립관계와 투쟁관계에 있다고 여겨 양극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는 대립관계에 있다고 여겨 양극화 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본주의 역사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상과는 다르게 구 계급으로 양극화 하지 않고 중간계급이 실재하였는데 뽀띠부르주아라고 불리던 소자본가, 자영업자가 이에 속하였다. 오늘날에는 상인, 공무원, 근대산업과 기술혁신에 의해 대량으로 배출된 샐러리맨, 샐러리맨화한 노동자 등을 신 중간계급이라 한다.

그러나 계급적 위치와 계층에 따라서 계급론을 논하는 학자들은 계급의 형성을 육체적 노동과 비육체적 노동으로 나뉘어 계급의 성향과 특성을 나타내고, 계급 취향의 배경을 이해하고 지배적 환경의 특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비투스(habitus)는 무의식적이고 보이지 않는 구조로 하나의 특정한 계급의 존재조건에 관련된 체계라 본다. 48) 일정한 방식의 행동과 인지와 감지의 판단의 성향체계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개인들의 내면화 된 육화(肉化)는 일상적 실천들의 구조화하는 양면의 메커니즘 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 성향의 배경에 따른 실천적 행위와 각 개인의 사회화와 지위의 물질 조건과 규정에 따른 객관적 잠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개인의 속한 생활환경에 본래 조건과 산물로 교육에 의한 영향과 언어와 육체훈련의 사회구조 의식에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행위 양식으로 바뀌어 진다고 생각된다.

46) 고영복, 전제서, p.358.

47) <http://terms.naver.com/>, 지식엔진 연구소

48) 뽀에르부르디 외(2006),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서울: 새물결출판, p.13.

3-2. 상공업적 배경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자본들의 분배는 사회체계에 객관성 계급구조를 결정하는데, 사회의 전체적인 계급구조는 다양한 집단들이 소유하는 자본의 총량을 반영하고, 지배계급은 가장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을 소유하고 중간계급은 형태의 자본을 덜 소유하고 하층계급은 이러한 자본을 가장 적게 갖게 된다고 한다.

49)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유럽사회에 경제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가 그 특징이다. 르네상스 이래 드러나는 자본주의는 중세 말부터 18세기 말엽까지의 상업 자본주의로 18세기 말에서 1850년까지 산업자본주의로 185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 50) 상업자본주의는 본 배경으로 한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과학의 혁명과 더불어 가속화되었고 현대인에 물질적 생활의 근본을 제대로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문명의 변화는 51) 1837년 프랑스에 최초의 상업열차가 등장한 뒤로 1890년까지 열차노선에 변화는 해마다 만 킬로미터 까지 늘어나고 확장되면서 장기간에 전쟁으로 인한 도시재건에 개발계획 등 프랑스의 정부는 재정 이 고갈되고 직접 철도 증설에 개입하지 않고 최대 90년에 다하는 사업독점권을 주고 개인 사업가들로 하여 기차사업에 끼어들게 독려하였다.

이처럼 상공업의 주요발전에 하나는 기차산업의 확장과 정부가 아닌 개인 사업으로 이끄는 공사이고 유명한 대 자본가와 투자자들로 인한 기차산업 발전과 뿌리부르주아에 상업적 상승 배경원인의 결과이고 이는 52)〈그림2-7,8〉은 유럽을 가로질러 동양으로 향하는 특급기차인 만큼 오리엔탈 에스프레스는 다채롭고 흥미로운 승객명단으로도 유명하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단골인 오스만 제국의 영주들, 패딩 코트를 날렵하게 차려 입은 영국신사들 지금의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와 런던을 오가는 곡물거래인, 배 나온 유태인 등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열차라고 알려진 만큼 오리엔탈 에스프레스에는 2

49) 자세한내용은 나은선, 전제논문,p.5.

50) 권석봉(2008), 「벨 에포크시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얼굴표현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5.

51) 이지은(2005), 『부르주아의 유쾌한 사생활』, 서울: 지안출판, p.98.

52) 상계서, p.92.

등 칸이 없다. 마호가니와 크리스털로 마감된 객실의 정원은 총2명이다. 가스등과 증기로 데워지는 난방장치가 완비되어 있고 도기로 된 집기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화장실이 딸려 있다.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즐거움으로 알려진 레스토랑으로 빼놓을 수 없다.



〈그림2-8〉⁵³⁾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그림2-9〉⁵⁴⁾생라자르 역

19세기말의 크게 발달한 산업의 발달 배경은 철도 산업으로 이는 모든 기업들이 철도 산업의 경영방식을 차용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며, 또한 풍요로운 물질 자본에 영향을 주었고 인류에 공헌 바가 아주 큰 산업이라고 생각된다.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춘 기업들이 생겨나고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상업과 제1차 산업에서 얻어진 생산물을 원료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여러 생산물을 가공, 생산하는 산업부문인 공업과 ⁵⁵⁾생산의 장은 이미 존재하는 취향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된 상품을 소비하려는 다소간 강력한 소비취향에 의존하지 않는 한 분명히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데 바로 취향으로 하여금 어

53) http://blog.naver.com/g2s_academy/140153299490

54) 이지은(2005), 『부르주아의 유행한 사생활』, 서울: 지안출판, p.97.

55) 뻬에르부르디 외, 최종철 옮김, 전계서, p.415.

면 순간이건 양식적 기능성의 체계 즉 생활양식을 구성하는 양식주의적 특징들에 체계를 선택 할 수 있도록 모든 지배계급과 이들의 모든 속성 속에서의 인정과 탁월성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한 계급<class>의 판단능력과 행동에 따른 형태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⁵⁶⁾ 자본은 모든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대상들도 확장된다. 많은 양의 경제적 자본 소유를 함축하지 않고 경제 자본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본의 다양한 형태를 구분함으로써 경제결정론적인 ‘계급<계층>개념’을 극복 하고자 한다. 경제자본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돈과 물질적 대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타 재정자원과 자산뿐 아니라 금전적 소득을 포함한다. 사회 자본은 집단과 사회연결망 내에서의 위치와 관계이다. 이것은 사회적 연결망에서의 소속을 통해서 동원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들의 종합이다. 상징자본은 다른 세 가지 유형의 자본들이 전통적으로 승인된 형식의 위신, 존망, 명예, 명성 등으로 규정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사회체계의 계급구조를 결정하는 계급갈등은, 상징을 특별한 자원구성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이념화로부터 동원하고자 하는데서 일어나는 경향이다. 일찍이 소비의 영역에 있어서 중간계급의 지배적 코드를 분석한⁵⁷⁾ 짐멜<Simmel>은 하향전파이론<The Trickle Down Theory>을 통해 유행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그는 사회의 지배계급이 유행을 선도하는, 이를 하위계급이 모방하고 다시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차별적 위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새로운 패션을 창출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그 위치적 특성상 상층에 대한 모방 욕구와 상층에 대한 차별화 욕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중간계급의 이중성보다는 ,상층을 모방한다는 중간계급의 이중성보다는 오직 상층을 모방한다는 중간계급의 성격만이 중요한 사실로 간주 되고 있다. 소비문화는 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행위나 관행을 나타 내는 일반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통용되는 상징과 문화적 규칙

56) 이영욱(1996), 『부르디외:문화자본과 아비투스』, 박명진의 『문화, 일상, 대중』, 서울: 한나래 출판, pp.31-33.

57)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철학에 있어서 프랑스 베르그송과 함께 생활학의 대표자이며 사회학 분야에서는 초기의 종합사회학에 반대하고 사회화의 형식을 그 내용으로 분리, 독자적인 대상으로 형식사회학을 주장하였다(박명진 외 저서, 이영욱, 상계서, pp.31-33.).

이 다르므로 소비문화는 연령, 사회계층, 직업, 거주 지역, 생활수준 등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나타낸다.

결국 19세기말 상공업의 발달은 사회 속에서 소비자로 대표되는 중간계급층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혹은 선택되어지는 스타일로 사회의 흐름에 따라 허락되는 상징과 문화적 역할이 다르므로 소비문화는 연령, 사회계층, 직업, 거주 지역, 생활수준 등 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58) 1890년 이 후 서구제국은 획기적인 기술진보를 하였다. 증기기관의 발명, 자동차, 비행기, 전화의 출현, 동력원으로 석유와 전기의 이용 그리고 합성수지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화학공업의 발전이 괄목할 만하다.

58) 라이트하임(1982), 『유럽현대사』, 유재건 옮김, 서울: 백산서당, p.46.

3-3. 대중적 배경

59)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는 역사적인 해인 1900년을 맞아 대대적인 준비에 들어간 파리민국박람회는 3년 전인 1897년부터 일찌감치 공사에 들어갔다. 20세기를 맞는 기념비적인 민국박람회답게 행사계획서는 그야말로 장대했다. 20세기를 맞는 기념비적인 민국박람회답게 행사계획서는 그야말로 장대했다. 1851년 런던에서 ‘만국 산업 품 대전시〈Great Exhibition of the Works of Industry of All Nations〉’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만국박람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기술과 각국에서 생산된 각종 신기술,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국가적 이벤트였다.

〈그림2-10〉세기말의 민국박람회는 그야말로 최대의 박람회로 최고의 발명품과 실용적인 기계들이 대부분이었고 커피머신, 세탁기, 재봉틀, 가스증기기관차, 전구 등 일상생활에서의 필수품인 테크놀러지의 발전이었다. 19세기의 과학 발전은 내일의 생활을 윤택하게 바꿔주는 희망이며 속도와 변화의 시기였다.

60)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서구 여러 나라는 근대 사회로 진입하였다. 프랑스 중간계급은 1789년 대 혁명으로 구체제를 무너트리고 19세기 전반 산업혁명을 일으켜 근대사회의 기틀을 마련했다. 근대사회의 성립이 문학을 포함해 예술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예술을 시장 원리에 종속시킨 것이다.

61) 과거 서구사회에서는 국가나 교회가 계층별로 문화를 엄격히 규제하였다. 귀족들은 지배문화 또는 엘리트 문화로서 고급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들의 귀족문화는 지배계층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 사회의 대표문화였고 공식문화였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는 그들의 계급에 의한 취향과 아비투스⁶²⁾에 의한 사회적으로 물질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 차이가 문화적으로 연장된 결과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의 자본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20세기 초 프랑스의 벨 에포크시대의 문화가 절정에 이르는 황금의 시기였던 이때 고급문화가 대중문화의 형태로 확산되던 시기였다.

〈그림2-11〉는 19세기 사교의 중심이었던 레스토랑이 유행을 하였던 때 〈그림

59) 이지은, 전계서, pp.209-212.

60) 이미혜(2004), 「19세기 프랑스 문학 독자」, 프랑스어문교육 제18집, p.577.

61) 정진수(2003), 『대중예술의 이해』, 서울: 집문당, p.13.

2-11>은 ⁶²⁾19세기 레스토랑안의 사람을 관찰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고 살롱에 모여 문학을 논하였던 18세기 문학과들은 달리 알렉산드르 뒤마 같은 19세기 소설가들은 레스토랑을 제집 드나들 듯이 했고, 뒤마는 <삼총사>, <몽테스키백작> 같은 히트작 뿐 아니라 <요리대사전(Grand dictionnaire de cuisine)>이라는 요리책을 쓰기도 했다. 한편 <그림2-12>은 ⁶³⁾ 19세기 사람들에게 ‘미식’은 즐거움과 취미의 영역이기도 했지만 화학과 공학의 영역이기도 했다. 1824년 ⁶⁴⁾카르노(Carnot)가 발표한 ‘열역학의 법칙’은 우리의 신체 역시 기계처럼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기관이며 음식은 바로 그 연료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그림2-10>⁶⁵⁾1900년 파리민국박람회



<그림2-11>⁶⁶⁾ 레스토랑

62) 이지은, 전게서, pp.243-244.

63) 상게서, p.249.

64) 프랑스의 물리학자. 카르노사이클의 개념을 도입하여 온도차의 역할과 ‘열평형 회복’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열역학 제 2 법칙의 기초를 닦았다. 유고(遺稿)에서 종래의 열 물질성을 탈피하여 열과 일의 다량성을 제시하면서 열역학의 선구자가 되었다. (출처:<http://terms.naver.com/dopedia> 참조)

65) <http://blog.naver.com/langlang2020?Redirect=Log&logNo=120117399248>

66) 이지은, 상게서, p.244.



〈그림2-12〉⁶⁷⁾ 레스토랑



〈그림2-13〉⁶⁸⁾몬테스키외

⁶⁹⁾18세기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코코아와 설탕, 잼 등 다양한 간식거리가 19세기 중 후반부터 등장 했으며 , 가공할 만한 기술발전에 대한 두려움과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식재료들에 아연실색한 나머지 이를 우려한 지식인들도 적지 않았다. 화학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하고자 했던 리브유 대신 누구나 기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준 면실유, 고급술 인 행을 첨가한 옥수수술은 이 시장에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사카린으로 만든< 환상의 잼>이었다.

미식에 대한 관심과 공장의 발전으로 생산한 식품을 가게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화학의 발전이었고 합성보존료와 인공첨가물은 식품의 유효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도 했다.

19세기 중 후반을 넘어서면서는 가스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오늘날처럼 저녁 시간대에 7-8시에 저녁식사자리를 예약하였으며, 저녁시간대의 공연거리로는 오

67) <http://blog.naver.com/langlang2020?Redirect=Log&logNo=120117399248>

68) 이지은, 전게서, p.243.

69) 상게서, p.253-254.

페라와 연극 등 각종 공연을 11시까지 넘어서 이루어 졌다.

미식의 문화는 점차 공연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는 70) 19세기말 몽마르트에서 발전한 서민중심의 유흥문화로 그 사상적 배경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프랑스사회가 변화했음을 증명한다. 민주적 서민문화가 가장 인기 있는 유행이 됨으로서 수세기동안 국왕과 귀족 계층에서 시작되어 단계적으로 아래로 전파되어 내려오던 문화의 전통적인 방향성이 바뀌었다. 혁명 이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였으나, 몽마르트 문화의 정립과 더불어 이제는 문화에 외곽, 주변부에서 하류계층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현란한 춤을 추는 무희들 신랄한 비판을 해대는 가수들,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간행물의 성행은 몽마르트의 성격인 사회적 주변부에 대한 찬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중문화의 본질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나, 19세기 말의 몽마르트문화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부르주아문화의 기준들에 부합되기를 거부하는 저항으로 인식되어 하나의 기호로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71) 문명세계의 향락과 예술의 도시로서 세계모드의 중심지인 파리는 몽마르트에 물랑루즈<moulin-rouge>가 오픈하고 물랑루즈와 캥캥 춤은 벨 에포크를 상징하는 이름이 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 패션에는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캥캥 댄서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모았고, 로트렉은 야성적이고 쾌락적이며 관능적인 캥캥 댄서들을 자주 그렸다. 코르셋과 패티코트 등이 하의를 구속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장하던 당시에 프릴과 레이스가 많이 달린 스커트를 걷어 올리고 에로틱한 춤을 추는 캥캥 무희 패션은 당시 귀부인들 사이에서 경이로울 만큼 새로운 스타일로 여겨졌다.

검은 고양이라는<그림2-14>는 카페 콩세르<cafe concert> 줄여서 카프콩<cafe conc>로 불린 카바레가 몽마르트에 처음으로 생겨났고 그 후로 10년 뒤 로트렉이 즐겨 삼았던 라귀리, 잔느 아브릴, 발랭탱데조시 등이 인기 있는 연예스타들이 활동하는 물랑루즈에 빨간 풍차가 그를 위해 1889년 문을 열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중문화는 화려한 파리문화에 몽마르트를 중심으로 당시에 유행 했다. 한편 <그림2-14>에서 보는바와 같이 72) 벨 에포크의 시간적 특수성과 함께 파리

70) Andre Roussard(1996), foreword to style Buisson & christian parison, 『*paris Montmartre A Mecca of Modern Art*』, paris : Edition pierre Terrail. p.12.

71) 장순찬(1985), 「아르누보패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43.

라는 도시의 공간성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랜 역사에 파리는 19세기 중반 오스만 남작(Baron Haussmann, 1809-1891)에 의해 진행된 도시 재정비 계획을 통해 현대도시로 거듭나는 기본적 시설에 확충을 마치면서 도시자체가 ‘자본의 상징(sign of capital)’인 부르주아 중심에 상공업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현대화된 파리는 혁명에 진원지라는 원래 성격을 잃지 않았다. 정치적 권리를 얻는 민중은 문화에서도 보다 민주적 문화에 출현을 요구하면서 처음으로 ‘대중문화’라는 것을 형성시켰다. 원래 폭력적 행위를 통해 집단 정체성을 찾는 도시인들을 일컫는 ‘폭도’로서 군중의 사전적의미도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 속 구경거리 대상이 관중으로 탈바꿈했다.

73) 이러한 문화혁명은 여러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평화를 유지한 제3공화국 구조 덕분에 가능했기에 엘리트집단과 권력층이 74)헤게모니의 장악을 위해 문화를 제공하고 프로레타리아를 통합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75)파리에서는 1800년경부터 카페가 번성하였고, 서민의 집합소가 되었다. 상젤리제 거리에 있던 ‘퐁퐁이 프루리’ 라는 남자의 가게가 손님이 적어 파산직전에 있었다. 그래서 프루리는 하나의 방편으로 스스로 상송을 불렀고 그 결과 손님이 많이 몰렸다. 이것이 카페 콩세르의 시작이다. 카페 콩세르는 상송의 기초를 쌓았다. 76) 상송은 프랑스어에 의한 세속적인 가곡을 뜻하고 칸초네는 노래 또는 가요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오페라의 아리아와 같은 순 클래식곡은 제외하고 널리 대중이 애창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포플러 송을 뜻한다. 세계 각국의 포플러 송 중에서도 상송은 특히 가사가 중요시된다.

상송은 중세의 음유시인 투바두르와 트루베리 등의 기사가요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1-13세기에 전자는 남프랑스에서 프로방스어로, 후자는 북 프랑스어에서 옛 프랑스어로 십자군과 영웅들의 이야기, 세속적인 사랑 등을 그려 단 선을

72) Vanessa R. Schwarts(1998), 『Spectacular Realities: Early Mass Culture in Fin-de-Siecle Paris』, 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5.

73) 알란 스윙우드, 이광수 외 옮김(1984), 『대중문화론의 원점』, 서울: 전예원, p.25.

74) 헤게모니라는 개념은 한편으로는 국가기구나 정치사회가 그들의 법률적 제도, 군대, 경찰, 감옥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가 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사회 계층들의 자발적인 동의(同意)를 어떻게 이끌어내는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출처: 문학비평용어사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2006.1.30, 국학자료원),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 참고

75) 위키백과(2013), 『카페콩세르: Ko.wikipedia.org』

76) <http://100.never.com>, (dopedia, 두산백과 참조)

의 가곡으로 만들어 불렀다. 곧 정형이 배격되고 자유스러운 형식에 비교적 단선율적 이고 리드미컬하며 약간 비속한 가사로 서민적인 생활감정을 여유 있게 노래하게 되었다. 77)〈그림2-15〉에서의 오페라는 19세기 이탈리아에서 발달하여 그 후 프랑스에 전하였지만 그 이전에도 프랑스에는 음악을 곁들인 전원극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13세기의 트루베즈〈북부 프랑스에서 활약한 음유시인〉, 드라알이 쓴 목가극〈로뱅과 마리옹의 유희〉은 이후 오페라 코미크의 시조가 되었다. 17세기 경 부터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들어오면서 루이왕조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그 권력의 상징으로서 프랑스오페라가 발달하였다. 최초의 대가는 텔리이며 그는 프랑스궁정의 귀족들의 기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오페라의 특색을 살리는데 쉽게 성공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에는 파리에서 글루크의 오페라가 상연되어 대성공을 거두자 파리에서는 글루크파와 푸치니파가 심한 대립을 하게 되었다. 글루크의 오페라는 그 후 19세기 초 프랑스의 그랜드 오페라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 78) 기계문명이 급속히 발달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예술은 전환기의 모험적인 예술로서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모든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재하며 미술은 음악이나 문학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서양은 동양과 함께 교감하였다.



〈그림2-14〉 79)카페콩세르



〈그림2-15〉 80)앙바사되르

77) <http://terms.naver.com/>, dopedia 참조

78) 민주식(1999), 「세기말 예술의 모험」, 『예술연구』 제4권, 신라대학교예술연구소, p.13.

79) http://commons.wikimedia.org/wiki/Main_Page

80) <http://cafe.naver.com/booheong/26312>



〈그림2-16〉⁸¹⁾19세기 도시민의 파리



〈그림2-17〉⁸²⁾희극과 오페라 캐리커처

83) 기계문명이 급속히 발달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예술은 전
 환기의 모험적인 예술로서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모든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재하며 미술은 음악이나 문학과 친밀한 관계에 있
 었고 서양은 동양과 함께 교감하였다. 84) 생에 대한 요구와 새로운 생의 형식을
 주장하고 나섰던 1900년경의 예술 및 문학의 거대한 전체 복합체는 하나에 심연
 위에 구축된다. 리하르트 바그너가 이러한 예술가들에게 본질적인 것 을 주었으
 며 오스카와일드, 토마스만은 바그너가 미학적, 음악적 모험이 가지는 전체적인
 성격을 바그너에게서 인식하고 있었다. 무용은 이사도라 덩컨, 마리 비그만에 의
 해서 근대적인 헬레라우 체조, 무용학교가 세계관을 제공하였다. 이 사이
 에 새로운 표현주의, 입체파, 미래파, 칸딘스키로 대표되는 추상미술 등으로 나타
 나는 친구세대간의 대립, 문학에서는 기존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에 대
 향하여 상징주의가 유행하게 되는데 보들레르, 미나렛, 헛셋, 와일드 등이 대표적

81) <http://cafe.naver.com/booheong/26312>

82) <http://navercast.naver.com/>, 캐스트(이용숙)

83) 민주식(1999), 「세기말 예술의 모험」, 「예술연구」 제4권, 신라대학교예술연구소, p.13.

84) 박연식(1996), 「벨 에포크시기의 아르누보 건축에 나타난 심미주의적 조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224.

이고 심미주의와 연결 된다

심미주의는 예술을 위한 예술로 미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예술지상주의를 말하며 정신보다는 관능을 중요시하고, 작품내용보다는 형식과 기교를 중시하며 독자적 예술세계를 창조하고 악에서 미를 추구하는 심미주의다.

85) 20세기 초 프랑스의 벨 에포크(Belle e'poque)시대 프랑스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고급문화가 대중문화의 형태로 확산 되던 시기인 20세기 초 벨 에포크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였다. 자동차, 비행기, 전기 등을 비롯한 문명의 발달은 영화의 발명, 아르누보의 탄생과 더불어 예술분야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왔다. 삶의 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도 왕성해 졌고 특히 의학적, 미학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여성에 이미지는 파리 만국박람회에 전시된 대형여성조각처럼 원기 완성하고 긍정적인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86)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프랑스, 미국, 영국 등 대도시에서 차례로 생겨난 백화점과 때마침 공장생산으로 옮겨간 직물산업과의 밀착관계 속에서 대중 소비경제를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백화점 탄생은 상업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 이행한 시기와 맞물린다.

87) 피터 드리커(Peter Drucker)는 그의 저서 <단절의 시대>에서 대도시는 19세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시장이었다. 그것은 발명에의 자국이 되어 그 발명에 근거해서 발전하는 산업에 대해 커다란 시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들 발명 가운데는 가스등에서 발전하는 산업에 대해 커다란 시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들 발명 가운데는 가스등에서 발전한 조명과 지하철, 전차, 고가철도 전신, 등의 수송, 전화, 전신, 로마시대이래 최초 건축자재 변혁인 고층철골 빌딩 건설, 신문, 게다가 백화점등이 포함된다.

<그림2-18,19>에서, 19세기 백화점은 신 유행품들을 들여놓는 곳으로 여성들에 화장품과 가방 등 부유한 부르주아 고객과 귀족에게 널리 사랑을 받았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백화점 탄생은 귀족과 상류층들에 고가 명품을 즐길 수 있었

85) Gerald Leroy, Julie Bertrand-Sabiani(1998), 『 La Vie litteraire a la Belle Epoque』, Paris : puf, p.263.

86) 최향란(2007), 「19세기 중엽 프랑스백화점의 역사」, 한국프랑스사학회, p.43.

87) 김인호(2006), 『백화점의 문화사, 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 서울: 살림지식총서, pp.42-43.



〈그림2-18〉⁸⁸⁾ 백화점 포스터



〈그림2-19〉⁸⁹⁾백화점 포스터

던 곳이라 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상점들과 경쟁을 통한 자율신장 역할을 부추기는 여성들에 신제품 유행판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 본다.⁹⁰⁾최초의 백화점 봉마르세의 등장 이후 유럽에는 ‘백화점’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보았다. 프랑스의 뒤를 이은 나라는 영국으로 런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백화점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1863년에 휘틀리〈Whiteley〉사가 런던에 백화점을 개업한 것을 계기로 주변 상인들이 이에 자극을 받아 백화점 업계에 속속 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당시까지 건어물 상이었던 해롯이 동시기에 백화점으로 변신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유럽에서 생긴 백화점은 그 후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번성기를 맞게 된다. 1870년에 워너메이커〈Wanamaker〉가 백화점 형태로 재단장을 한 것을 계기로 잡화상 이었던 메이시〈Macy's〉와 마샬 필드〈Mashall Field〉가 1870년대에 백화점업계에 참여하여 성공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공업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은 여러 대중성에 발달을 가져왔고 백화점 출현과 함께, 경제적으로 급격한 공업화 발달을 가져왔다.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제의 공업생산이 이루어지고 상품 교환가치의 강화에

88) <http://lotusksm.blog.me/70133751858>

89) <http://lotusksm.blog.me/70133751858>

90) 김인호, 전계서, p.10.

따라 상거래가 왕성해진다. 또한 도시화와 함께 인구에 도시집중이 이루어지고 도시 내 혹은 도시와 교류하는 교통에 결점인 도심 주요 패턴이 생성이 된다.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회사제도가 성립되고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설립되고 인구 증가는 도시에서 노동력의 필요에 의한 여성 사회진출이 시작되고 여러 건축기술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트 개발 등 신문잡지 발행으로 구독자의 수가 늘어나 매스미디어 광고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유통산업과 외식문화와 공연예술 발달은 오늘날 볼 수 있는 문화에 상징이며 오늘날 문화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3-4. 귀족 지향적 배경

91) 19세기 전반 프랑스 당시 시대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인 부<富>를 축적했고 사회적으로 계급의 변화가 일어나 귀족계급이 점차 몰락하여 신흥 부르주아가 등장하는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 왕정복고에서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동기였다. 프랑스 대혁명이 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다. 귀족은 옛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귀족이라는 명칭만을 보유하게 된다. 혁명과 전쟁을 통하여 그 수요가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망명귀족의 경우에는 그 토지가 몰수된다. 일반적으로 귀족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19세기 프랑스 사회는 귀족과 부르주아 대결을 피할 수가 없었고 소수의 발 빠른 귀족들은 경제적인 부를 쌓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보다 낮은 부르주아들과 손을 잡아 그들과 경쟁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역사의 무대에서 퇴각하여 순전히 개인적인 삶을 살뿐 귀족계급의 사회적 몰락은 산업혁명으로 거대한 부를 소유하게 되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급인 신흥부르주아를 부각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산업혁명과 함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되고 사회적으로 토지와 가문에 기반을 둔 귀족들을 대신하는 상공업과 교육에 기반을 둔 신흥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92) 17세기의 프랑스는 봉건적 질서의 테두리 밖에서 왕권의 신장과 발맞추어 성장한 부르주아는 원래 원격지 시장을 연결하는 일종의 유랑 직업인으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으며 수입과 지출과 균형, 저축에 의존하는 부의 축적 등. 그때까지 귀족이나 농민이 알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관념을 생활기초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부르주아의 이 독특하고 특징적인 본성과 귀족을 파산시킬 수 있는 제도와 잔존하는 중세적 가치에의 숭배는 곧 그들에게 심리적으로 귀족에 대한 강한 경쟁심을 동반한 동경을 갖게 하였고, 그것은 부르주아 계층내의 균열을 초래하였다. 상류 부르주아는 귀족지향적인 사회의 분위기

91) 박미애(2005), 「발자크적 사실주의에 대한 연구: *Le Pere GorToot*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28.

92) 이예린(1996), 「몰리에르 작품에 나타난 신분상승 욕망과 고찰: 부르주아 계층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4.

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과 부르주아간의 강한 경쟁심을 이용한 왕의 정치적 책략 때문에 관직을 사들여 곧 준 귀족화 되었던 것이다. ⁹³⁾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배우인 몰리에르는, 몰리에르의 희극 가운데 가장 근대적인 작품인 〈부르주아 귀족(Le Bourgeois gentilhomme)〉은 부를 쌓은 뒤 중, 상류층으로 신분상승을 꾀하는 부르주아들을 다루고 있다. 몰리에르는 자신의 고유한 희극 방법론을 이용해 극 중 주인공인 주르댕에게 비이성적인 광기를 주입하고 그 결과를 예단한 뒤 현실의 갈등 상황에서 주르댕이 지닌 태도 때문에 생겨난 결과를 탐색했다. 이 작품은 코미디 발레 극으로 극작가의 위대한 희극적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다.

작품에서 들어난 부르주아의 귀족적 특성은 서민계급을 가진 사람들 중 유난히 부를 많이 축척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주르댕은 귀족계급에 속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분야의 선생들을 고용해 교양을 쌓거나 귀족의 옷을 입는 등 귀족이 하는 일이라면 모든 가리지 않으며 또한 양복점 주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돈은 많지만 귀족에로의 위상을 펼칠 수 없는 주르댕의 안타까움과 어떻게 해서든 신분 상승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은 당시 부르주아들의 주변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경제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주르댕이었지만 사회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르댕이 하는 많은 일들에서 쉽게 발견되었다. 예를 들자면 극중 주르댕은 귀족인 도랑트 백작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이는 돌려받기 힘들 거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거금을 빌려주며, 귀족 사위를 얻기 위한 딸을 귀족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하는 등 혈통에 문제를 제기 시키게 된다. 이는 오늘날 졸부들에게서 나타나는 귀족의 습성과 품행을 따라 하는, 패션에 신경을 쓰고 이를 의식적으로 찾으려 하는 것이라 본다.

모든 특징들과 부르주아의 귀족 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몰리에르의 작품에서 졸부들의 귀족지향성에 대한 갈망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⁹⁴⁾ 18세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효의 귀족이 부르주아로서 귀족이 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귀족이 되고자 하는 부르주아의 소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롤랑집안은⁹⁵⁾귀족

93) <http://terms.naver.com/>, 고전해설ZIP,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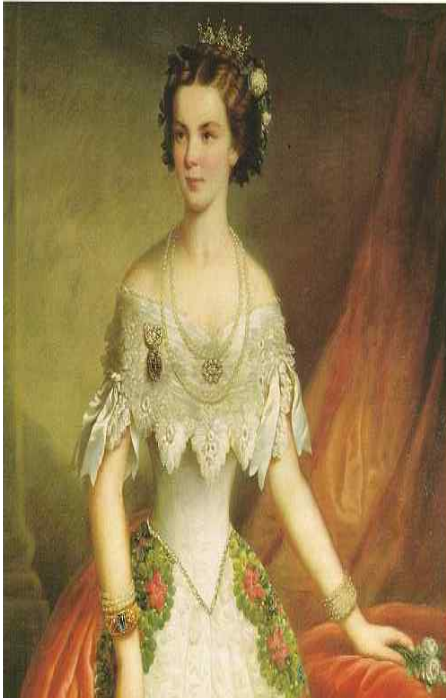
94) 자세한내용은 이예린, 전제논문, p.74.

95) Jean Marie Roland(1734-93)과 Jeanne Manon Roland(1754-93): 남편 Jean Manon소유의 살롱은 당시 공화적인 지롱드파의 본부였다. 지롱드파의 몰락 후 부인은 혁명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자살했다.

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로베르스피에르<de Robespierre>라고 표기하였다. 96)당톤 <Danton>또한 <d' Anton>으로 분철하였다. 샤르트르의 여관집아들 출신이었지만 이모든 것은 귀족에게로의 지향적인 노력이었다.

이와 같은 부르주아는 다양한 금융 및 상업의 파리나 대도시의 신도시에서 자리를 잡으며 호화롭게 살았고 단 귀족과 다른 점은 혈통과의 문제였다. 이러한 부르주아는 신분상승에의 욕망은 부를 축적한 상류 부르주아 인물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자 점차로 증대되어가는 귀족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된다. 사회구조가 아직까지는 권력과 신분의 상부를 귀족에게 내주고 있는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귀족 가치가 인간가치의 모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의 내용에서 거론 했듯이 몰리에르 작품인 서민귀족인 부르주아 인물 주르맹은 어떠한 권위로부터 간섭 없이 자신의 욕망을 귀족들에 생활양식을 흉내 내면서 돈을 쓸 수 있고 이로 말미암은 본인 스스로가 귀족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귀족 동경의 모순으로 사료된다. 한편 프랑스 파리는 오프 꾸뛰르<기성복>가 창시된 곳이다. 영국인이지만 파리에 정착한 위스<Sir charles Frederic Worth>가 최초로 오프꾸뛰르를 창시하였다. 위스의 활약은 1851년 쿠데타로 황제의 자리에서 앉은 나폴레옹3세는 매우 사치스러운 소비문화를 장려했다. 일명 <그림2-20>의 <유제니 황후> 머리 형태와 의상이 상류 사회에 유행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파리는 패션의 중심지이며 위스는 패션의 중심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파리패션과 백화점은 중류계급의 성장과 함께 성장을 했다. 구매력이 높아진 중류계급은 유럽귀족들이 파리 위스의 점포에 가서 애원해야만 입을 수 있는 드레스를 세계 여러 나라의 백화점에서 복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부르주아의 귀족지향성은 당시의 부르주아 인물들의 신분상승의 열정과 스스로의 출신계급에 대한 부정으로 신분상승 욕망의 실현방향이 미래지향이 아니라 과거를 지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6) 프랑스의 혁명가-용변가.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프랑스 제1공화국(1792. 9. 21)을 세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公安위원회(公安委員會)의 초대 위원장이 되었으나 점차 온건해졌고, 공포정치를 반대해 결국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았다.(<http://terms.naver.com/> 참조)



〈그림2-20〉⁹⁷⁾ 유제니 황후

97) <http://blog.naver.com/cindy620/150134198368>

3-5. 자유주의적 배경

19세기 말은 문명사회의 염증을 느껴 스스로 보헤미안이 된 집시들과 항상 떠돌아다니는 독립생활을 하는 것은 뿌리를 중시여기는 부르주아에 반기를 두는 것이며 다른 유흥업소와는 달리 몽마르트의 지역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것과 보헤미안 유토피아라는 개성을 중시 여겼다. 몽마르트의 언덕에는 자유와 쾌락과 풍류를 하나의 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보헤미안 문화를 만들고 부르주아들의 여가 적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들로 많아지게 되었다. 사실 몽마르트는 카페와 뮤즈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반 혁명주의자들의 은밀한 혁명장소의 역할을 하였던 바로 그곳이 19세기 말의 쾌락과 풍류 그리고 패션과 문학, 미술 등 세기말 가장 화려하고, 예술가들의 탄생과 퇴폐와 유흥의 장 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98) 기계문명이 급속히 발달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예술은 전환기의 모험적인 예술로서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모든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혼재하며, 미술은 음악이나 문학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서양은 동양과 함께 교감하였다. 자유로의 염원을 바라며 99) 상징주의가 등장하게 된 19세기말의 분위기는 절망과 퇴폐주의, 허무주의가 그 지변의 흐르는 가운데, 현실 문제보다는 내면세계에 집착하여 신비주의를 지향했는데 이러한 현상은 낭만주의 정신의 기본이었던 개인주의의 심화를 드러내었다. 이들은 사실주의에 대항함과 동시에 심미주의의 일면을 계승하였으며 신비로운 꿈과 환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신화와 성서 등에서 모티브를 구했다. 100)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여러 종류의 예술운동들이었던 아카데미즘, 리얼리즘, 자연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라파엘파, 상징주의, 표현주의, 아르누보, 수공예운동, 신 재료 건축운동, 추상예술계열전의 여러 운동을 모두 장식은 중요한 중심적 개념이었다. 101) 특히 라파엘로 전파와 상징주의 및 표현

98) 자세한 내용은 민주식, 전개 논문, (전개서, p.13), (본 논문, p.32).

99) 양재천(1997), 「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농촌17권, 동국대학교대학원, p.273.

100) 자세한 내용은 박연식 외, 전개논문, p.226.

101) 자세한 내용은 조수연, 전개논문, p.13.

주의는 이 시대의 전체적인 성격을 구성하고 있었다.

라파엘로는 단테 가브리엘 로젠티(Dante Gabriel Rossetti, 1828-18882), 윌리엄홀트만 헌트(William Holman Hunt, 1828-1910)잔 에버렛 밀레(John Everett Millais 1829-1896)를 중심으로 타락한 예술을 다시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르네상스 전통에서 탈피시켰다. 이들의 특징은 사실주의를 거부하고 낭만적이고 신비적인 화려하고 밝은 색채로서 아주 섬세하게 다루어졌다.

102)한편 자포니즘(Japonism)이란, <그림2-21>의 19세기 후반 유럽이나 서구 미술에 끼친 일본미술의 영향을 말한다. 자포니즘의 영향은 회화, 조각, 판화, 소묘, 공예, 건축, 복식, 사진 등의 분야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아가 연극, 음악, 문학을 비롯하여 요리까지 그 예가 발견되고 있다. 일본미술의 유행은 1860년경부터라 여겨지고 있으므로 약 반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넓은 의미에서 유럽 전반에 걸쳐 자포니즘이 일어났다.

103)일본의 자연표현은, 19세기 후반기 유럽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유일한 존재는 아니지만 다른 요소보다 진보적인 요소를 유럽인들에게 제공 하므로 서 유럽의 자연관을 뒤돌아 볼 수 있게 하였고 모티브의 사용이나 소재에 대한 친밀성과 우연성 등을 포함한 과정을 즐기게 하고 선의 율동에 대해 기뻐하게 하고 소재의 아름다움 등과 새로운 가치관을 발전시키게 하였다.

<그림2-21>의 고흐 작품을 보면 어두운색감과 원색의 풍부한 색감은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았고, 윤곽과 평면만을 사용하는 일본판화를 파리 생활을 묘사하는 드로잉과 회화에 도입하였다.

102) 이병훈(2006), 『우끼요에가 19세기 근대 유럽화가에 미친 영향: 고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18.

103) 자세한내용은 상개논문, p.23.



〈그림2-21〉¹⁰⁴⁾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회화의 표현

비엔나 분리파의 창시자이자 오스트리아 표현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1862-1918〉〈그림2-22〉, 상징적이며 장식적인 작품인 아르누보의 예술장식에 영향을 미쳤으며, 화려하고 곡선 적이며 울동감이 있는 여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르누보의 조형적 장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상징주의 예술가들 에게는 의식의 모호함에 대하여 유심히 탐색하였다. 회화에서 거울에 대한 묘사가 증가한 것과 일체감을 갈구한다는 의식의 한 표시인 여성의 성적자율성과 감각의 각성, 억제할 수 없는 육체적 욕망의 중요성, 즉 입센의 ¹⁰⁵⁾〈바다에서 온 여인 1888〉이 점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남성과 여성의 존재론적 대립에 거의 강박적으로 매달린 몽크는 성의 양면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 당시 〈그림2-22, 23, 24, 25, 26, 27〉의 말라르메〈1864-1867〉의 〈에로디아드〉에서부터 모로와 클림트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에 이르기까지 살로메를 다룬 주제가 유난히 많았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다.

¹⁰⁶⁾〈이세상이 아닌 그 어디인가〉라는 표현은 에드가 앨런 포가 사용한 문구

¹⁰⁴⁾ <http://artria.net/150037242891>

¹⁰⁵⁾ 여성해방운동에 불씨를 지핀 (사회극)이다. 인형의집과 같은 부류의 사회극이며 가정과 자유 신상에서의 갈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성을 사회가 요구하는 자기희생적인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충실한 독립적 인격체여야 함을 다시 태어나는 영혼의 모습을 나타내는 작품이다.(출처: <http://terms.naver.com/> 참조)

로 보들레르도 사용하였다. 이 문구는 실증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된 근대 세계에 대한 거부를 완벽히 표현하고 있다. 인상주의와는 달리 상징주의는 경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극도의 개인주의자들이었다.



〈그림2-22〉¹⁰⁷⁾ 삶과 죽음



〈그림2-23〉¹⁰⁸⁾ 내 슬픔을
등에 이고 가는 자



〈그림2-24〉¹⁰⁹⁾ 살로메



〈그림2-25〉¹¹⁰⁾ 악의 꽃



〈그림2-26〉¹¹¹⁾ 신과 같이..



〈그림2-27〉¹¹²⁾ 주술

106) 질장티 외(2002),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신성림 옮김, 서울: 창해출판, pp.12-15.

107) <http://blog.naver.com/chin0131/120024638358>

108) <http://blog.naver.com/chin0131/120024638358>

109) <http://blog.naver.com/chin0131/120024638358>

110) <http://blog.naver.com/tenggrang/30041329088>

111) <http://blog.naver.com/tenggrang/30041329088>

113) 18세기 프랑스의 문학 활동은 살롱에서 귀족과 상류층부르주아로 구성된 사교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살롱문화는 여성후원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마담 드 랑베르(Mme de Lanbert), 마담 드 탕생(Mme de Tencin), 마담 조프랭(Mme de Lespinasse) 같은 상류층 여성이 연 살롱은 계몽사상의 신설이었다. 18세기 프랑스의 문학 독자는 귀족과 상류층부르주아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그 수는 수만 명 정도였다. 1750년〈백과사전〉의 편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8천부의 취지서가 배부되었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당시 프랑스 내에서 발행된 주요 정기간행물의 구독자 수이기도 했다. 114) 19세기 후반 산업사회가 완성되면서 인구가 증가되고 경제 규모도 커졌다. 그러자 일부 작가들은 독자들의 저속한 취향을 경멸하면서 〈예술을 위한 예술〉 즉, 순수문학을 지향하게 되었다. 여태까지 하나의 문학에 담겨있던 예술성과 대중성, 진지성과 통속성이라는 양면이 대립적인 두 개의 문학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플로베르이후 순수 문학은 대중문학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며 통상적, 오락적요소를 철저히 배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115)〈보바리 부인〉을 쓰면서 플로베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쉽사리 폴 드콕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책에서는 단 한 줄이 잘못되어도 목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19세기 후반 진지하고 예술적인 소설들은 대중적 흐름을 거역하고 독자로부터 고립되어 플로베르는 단순히 대중적 취향을 거부한 것만이 아니라 소설에 대한 근본적 개념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란 지고의 가치와 사회예술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112) <http://blog.naver.com/walkeveryday/101341101>

113) 이미혜(2004), 「19세기 프랑스의 문학독자」, 프랑스어문교육제18집, p.577.

114) 자세한내용은 상개논문, pp.604-605.

115) 노르망디 농부의 딸 엠마 루오(Emma Rouault)는, 영원히 만족할 줄 모르는, 로마네스크한 영혼의 소유자이다. 농촌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그 여자는 시골 의사인 샤를 보바라(Charles Bovary)와 결혼한다. 그러나 곧, 개성도 없고 능력도 보잘것없는 이 착한 사나이의 어찌할 수 없는 평범함을 발견하게 되고, 미칠 듯이 싫증이 난다. 이 권태 때문에 그 여자는, 자기 이상의 화신(化身)같이 보이는 최초의 미남에게 쉽사리 먹이가 될 것이다. 그 여자는 다음에 공중인의 서기를 사랑할 것이다. 즉 그 여자는 즐거움의 회오리 속에 빠져서 하나의 소설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별안간 현실이 나타난다. 한 매정한 빗쟁이가, 그 여자가 남편 모르게 빗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여자를 궁지에 몰아넣는다. 그 여자는 비소(砒素)를 먹고 자살한다.(출처: 랑송불문학사, G. 랑송, P. 튀프로, 1997.3.27 을유문화사), (<http://terms.naver.com/> 참조)

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자본주의의 풍요는 물질만능적인 새로움의 태동이자 모순이며 과거의 인습적인 면에서 탈피하여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의 취향으로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계급사회의 일반적인 모순들이 문화와 생활양식에 나타나며 해악과 풍자를 통한 계급적 불평등에서의 자유를 탐닉 하였다. 여성들의 팜프파탈인 양상으로 남성우월주의의 사회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회화적 표현과, 문학에서의 여성해방의 의미와, 예술과 문학의 집합으로 인한 대중성을 보여주고 있었고, 취향의 모티브의 대두로 양면성적 유용성의 대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근대사회와 문화를 특징짓는 다양한 활동과 창조적인 사고가 결집되어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가 1880년경에 이르러서였다. 남녀평등과 개인에서 사회의 새로운 관계 등 기존 사회체계의 붕괴조짐이 나타났고 문학, 철학,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선구자들이 탄생하였다. 이와 같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기능성 복식이 필요했고 성차별 반대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성 가치관이 뚜렷이 변화되었다. 여성 패션이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변화되어왔다는 것은 확연한 사실이며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화가 급속히 전개됨에 따라 경제적인 변화, 기술혁신 및 변화를 맞게 되었고 도시로 몰려든 중산층이 형성되면서 이들의 문화적 차원도 높아졌으며, 사회변화 환경으로 여성들의 패션기능을 더욱 더 기능적으로 자리 잡았으며, 스포츠와 백화점 등장으로 문예 부흥, 계몽주의, 민주주의의 발달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여성해방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 환경변화는 또 다른 소비 행태인 물질적 만능으로 인한 여유로 외모와 116)신체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발견이 서서히 이루어졌다. 휴양, 해수욕, 온천치료의 대중화, 영국에서 유행하던 야외 스포츠의 도입, 유행과 미용에 관련된 기사뿐 아니라 내밀한 위생문제까지 다루던 여성을 위한 육체노동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산적이고 활력적이며 건강한 인체의 주요부분이다. 117) 19세기 중반 여성들에 의한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정숙한 가정 내 여성상에서 탈피하고 외부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했으며 남편의 지위상징 또는 트로피 와이프라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

116) 도미니크 파커(1989), 『화장술의 역사』, 지현 옮김, 서울: 시공사, p.78.

117) 이윤희 외(2007), 「19세기 여성 sport wear 변천에 관한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제9권, p.204.

게 되었다. 1852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개최되는 여성권리를 위한 집회와 1864년 미국여성들의 워싱턴의 정부기관에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취업의 기회가 확대 되어¹¹⁸⁾ 1879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된 제3차 전국 노동자 대회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던 전통을 거부하고 노동자대표를 직접 의회에 보낸 요구사항을 실천 하겠다는 의지에서 프랑스최초의 사회주의 노동당정당인 사노당을 탄생 시켰다. 노동당참석위원으로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이었고 남성들도 중산층이거나 사회적인 지식인이었다. ¹¹⁹⁾ 1880년대와 1890년대의 신여성으로부터 더 독립심이 강한 많은 신여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존재를 인식 시키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여성 참정권을 준비 중이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은 삶과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을 했고, 여성을 위한 사회 정치 단체가 1913년 설립되었다. 유럽 일부에서는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긴 했으나 여성 참정권은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¹²⁰⁾ 1850년대 이후 여성대학에서 1860년 체육이 도입되어 루이스 <Lewis>는 1861년 체육교육을 위해 정규기관<Normal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루이스<Lewis>는 여성활동 자유를 허용하는 의복 개발을 강조하였다. 바사르 <Vassar>대학에서는 1886년 회색 프란넬, 높이 올라오는 칼라, 긴소매, 발목길이 스커트와 블루머<bloomer>를 유니폼으로 착용했다. 이 운동은 승마, 테니스 등을 위한 스포츠웨어였다. ¹²¹⁾ <그림2-26,27>는 짧은 반바지나 블루머 <bloomer>가 이미 1860년대 여성용 수영복으로 받아들여져 벨트를 단 재킷과 함께 착용되었다. 수영복 착용 시 코르셋은 일상복보다는 드물게 착용되었지만 권장 되었다.

¹²²⁾ 1870년 이후에는 승마, 수영, 요트 등 스포츠 활동에 여성들에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 스포츠웨어가 발전했다. 테니스, 크로켓, 아이스 스케이팅, 골프 등은 스포츠라기보다는 사교활동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

118) 서이자(2001), 『19세기 말 프랑스 노동운동에서 성<gender>과계급<class>』, 프랑스사연구, p.182.

119) 이혜정(2000), 「영화 타이타닉의 의상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p.6.

120) Gayle V. Fischer(2001), 『*Pantaloon and Power*』, Ohio : Kent State University Press, pp.144-145.

121) 다이애너 크레인(2000),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미석 옮김, 서울 : 한길사, p.193.

122) 상계서, p.91.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긴 스커트, 코르셋, 커다란 모자가 필요했다. 여자대학은 여성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야구 등의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그림2-28>은 1880년대 여성해방에 대한 트렌드의 한 측면인 액티브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123) 테일러드슈트는 1889년대 영국의 레드퍼م<Rediform>에 의해 고안되어 전 유럽에 유행하게 된 것으로 남성복 일습인 코트, 웨이스트코트, 카브라, 타이틀 모방하여 여성복으로 차용한 스타일이다.<그림2-30,31>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사실의 인식인 것이다.

1890년대 최초의 여성운전자가<그림2-28> 생겨나고 그들을 위한 의복이 필요하게 되어 보온과 안락함을 위한 코트와 도로의 먼지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베일에 덮힌 커다란 모자가 유행하였다. 승마를 기점으로 다양한 스포츠가 확대되어 가벼운 의복의 대안을 필요로 하였다. 남성복 형태의 스포츠웨어가 등장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장식과 직선적이고 인체 선을 왜곡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의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유를 향한 의식의 개혁과 유럽 속의 동양으로, 동경, 문학, 미술개혁 또한 여성 해방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식 변화와 신체건강을 고려한 목적과 합일한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 사회에 급 변화와 상류층여성들에게 제한된 스포츠의 의복이중산계급인 빈민부르주아들의 증가로 대중화여로의 19세기산업화 발달과 자유에의 개혁에 하나라고 보여 진다. 기존 소외계층인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피하여 무역 증대에 의한 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역활동으로 부 창출과 외국문물 문화 영향은 의식세계관 영역에 제한되었던 가치관을 깨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외국문화 영향은 이 시대의 사고력과 역량적 배경인 여성들의 참정권과 사회적인 활동 영역성의 활발함으로, 곧 뷰티문화의 자유적 권한과 평등의 권한을 미용산업과 패션, 미술, 건축, 배경적 요인 등 근대사회 신여성에 활발한 적극성의 의지와 사회평등에서의 노력이라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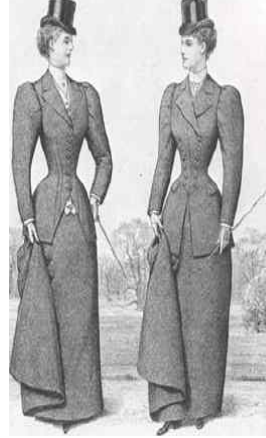
123) Kate Mulvey and Melissa Richard(2000), 『Decades of beauty』, London : hamlyn, p.6.



〈그림2-28〉¹²⁴⁾승마복



〈그림2-29〉¹²⁵⁾ 블루머



〈그림2-30〉¹²⁶⁾ 테일러드



〈그림2-31〉¹²⁷⁾수영복



〈그림2-32〉¹²⁸⁾자전거



〈그림2-33〉¹²⁹⁾테니스

124) <http://blog.naver.com/feelmine/110013050611>

125) <http://blog.naver.com/feelmine/110013050611>

126) <http://blog.naver.com/suji307/50139364554>

127) <http://blog.naver.com/suji307/50139364554>

128) <http://yuntaeman.blog.me/80119780626>

129) <http://yuntaeman.blog.me/80119780626>

Ⅲ. 미술사조 영향을 받은 뿌디부르주아의 패션 및 헤어스타일 특성

Ⅲ-1. 벨 에포크 헤어디자인의 특성

19세기 초는 프랑스 혁명에 영향으로 모든 일상생활이 화려함보다는 검소함에 풍조로 생활 하였으므로 헤어 디자인은 화려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미용사 크로와사의 아폴로노트, 나폴레옹3세의 제2제정기에는 왕비 유제니가 패션 트렌드로 풍파두르풍의 앞머리에 앙글레즈<anglaise> , 즉 길게 말아서 늘어뜨린 머리로 어깨에 여러 가닥 늘어뜨린 머리형을 영국에서 역수입하는 등 머리형이 빠르게 변화되었다. 프랑스의 치참한 패배로 끝난 1870년의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후의 안정기를 거쳐 1914년의 제1차 세계대전까지 파리는 이른바 멋진 시대를 맞는다. 1870년대는<그림3-1,2,3,4>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듯한 머리형인 워터 폴이 유행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미용산업에 혁명적인 영향을 준 마셀 크라토의 마샬웨이브가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동양에서는 풍파두르 형 등이 유행 하였으며 ,오늘날의 업스타일기초가 되었다. 1910년대 유행경향은 소프트 팜파돌<soft pompadour>이라고 해서 뒤로 머리를 빗어 넘기거나 올린 머리형으로 그 위에 모자를 썼다. 챙이 넓지 않은 밀짚모자 등을 앞이나 쪽으로 기울여 쓰고 모자에 리본, 깃털, 꽃 등으로 장식하여 모양을 내곤했다. 당시 유행을 주도했던 테라바<Theda Bara>는 앞가슴 쪽을 많이 노출시키고 가슴 쪽에 황금색 뱀 모양을 수놓은 의상과 정돈되지 않은 흐트러진 머리를 헤어밴드로 고정시키거나 양쪽으로 수많은 컬을 잡아 헤어밴드나 모자로 멋을 낸 헤어스타일을 영화 속에 등장 했다.



〈그림3-1〉¹³⁰⁾ 19세기 근대
헤어스타일



〈그림3-2〉¹³¹⁾ 1910년
스파이럴



〈그림3-3〉¹³²⁾ 소프트퐁파두르



〈그림3-4〉¹³³⁾ 1920년
크로키를 와인딩

130) <http://blog.naver.com/artsfocus/20045871529>

131) <http://blog.naver.com/artsfocus/20045871529>

132) <http://blog.naver.com/artsfocus/20045871529>

133) <http://blog.naver.com/artsfocus/20045871529>

1-1. 아르누보의 영향

134)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의 진보는 유럽전체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새로운 지배계급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출현시켰지만 19세기 말 대변영의 시기를 겪으면서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라고 느낀 미술가와 작가들은 예술의 목적과 방법에 점차 불만을 갖게 되었다. 135) 모리스는 1870년 미술공예를 통해 기계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문명을 타락시키는 것이라 보고, 대량 생산품을 반대하며 수공예에 의한 아름다움을 창조하여 인간 감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136) 사회의 흐름과 함께 등장하게 된 아르누보는 1910년 이 후 퇴조하기 전까지 회화, 건축, 공예, 의상 등 전환기의 모든 예술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과거의 전통을 과감히 개혁하고 생활환경 전반에 예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디자인 바탕이 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미술공예운동 정신은 고급예술과 저급예술, 순수미술과 응용미술의 위계를 타파하는 삶 속의 미술을 이루려는 유럽대륙의 아르누보 미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1890년 19세기말에 미의식의 호기심의 증대로 벨기에 출신 건축가인 앙리 반데 벤델(Henry van Velde)은 화가이기도한 그는 장식미술에서 포스터, 건축, 가구 디자인 등 여러 장르를 특징으로 했다. 이처럼 패션에서의 미술공예는 아르누보양식으로 발전한 장식으로 137) 아르누보(Art Nouveau)양식은 1890년부터 1900년까지 나타난 아워글래스 스타일(Hourglass style)과 1900년부터 1910년까지의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Empire Tunic style), 호블스타일(Hobble style), 미나렛 스타일(Minaret style)로 구분한다.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이 구분되는, 전기는 영국의 빅토리아(Victoria)여왕 말기에 유행했기 때문에 빅토리아 후기는 에드워드7세의 통

134) 정영애(2007), 「20세기아르누보양식연구」, 수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원본출처: 최경옥 외(2013),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연구Ⅱ」, 한국미용학회지 제19권, pp.34-45.)

135) 김경은(2007), 「아르누보양식을 이용한 식물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원본 출처: 자세한 내용은 정영애, 상계논문)

136) 상계논문, p.137.

137) 정홍숙(1998), 「아르누보, 아르데코 예술양식을 통해서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1-142.

치기간 동안 절정기를 이루었기 때문에 <에드워드안 스타일<Edwardian>>이라고 한다. 상징적이고 심미적인 아르누보의 특징적 성격은 당대 유럽미술사의 커다란 영향력과 산업, 과학의 달라진 시대, 세기말 전환기에 시기를 맞이한<미의 절대성>,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¹³⁸⁾1870년대부터 1890년대에 걸쳐 영국 상류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으며 아르누보 양식 미술 즉¹³⁹⁾인생을 위한 예술이 자연주의라면 전통적인 사조에 대한 거부자세를 취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열렬한 태도를 심미주의이고, 상징주의 예술가들은 현실문제보다는 내면세계에 집착하였고 신비주의를 지향하였다. 한편, <그림 3-5,6,7,8,9>는 문예부흥이 일어나고 예술양식에 의복이 재현되어 S자형실루엣이 대표적이었고, 코르셋으로 허리를 강조하던 시대이기도 하였다.¹⁴⁰⁾식물을 주제로 한 유동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곡선과 기하학적인 선이 나란히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 구성, 기하학적 아르누보 양식은 순수한 곡선적 장식미를 벗어나 직선, 삼각형, 사각형, 사선 등의 기하학적인 선과 구도를 주로 응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아르누보 양식의 특성인<그림3-10,11,12,13,14>에서 생동감과 우아함을 구하면서 기계에 대한 찬양에서 비롯한 좀 더 힘차고 직선적인 요소가 도입되어 기능을 중시한 현대적 감각을 뚜렷하게 발전시켜 간 것이다.

138) 곽형심 외, 전게서, p.229.

139) 심부섭(2004), 『UP & Styling』, 서울: 광문각, p.16.

140) 자세한내용은 김경은, 전계논문, p.9.



〈그림3-5〉¹⁴¹⁾실루엣



〈그림3-6〉헤어장식



〈그림3-7〉패션. 헤어



〈그림3-8〉패션, 헤어장식



〈그림3-9〉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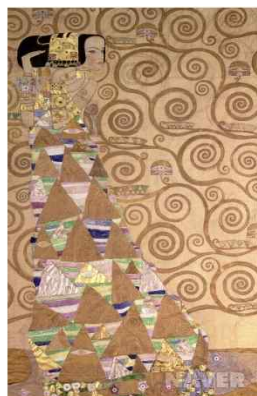
141) J. 앤더슨블랙 외(2005), 『세계패션사』, 윤길순 옮김, 간디서원 (그림출처: 그림 3-5~9)



〈그림3-10〉¹⁴²⁾테이지꽃



〈그림3-11〉상푸누와인쇄



〈그림3-12〉기다림



〈그림3-13〉 클림트



〈그림3-14〉 잔느 아브릴

142) <http://terms.naver.com/>, 미술지식백과 사전 검색 (그림출처 : 그림3-10~14)

다음과 같은 아르누보의 영향은 문양과 양식의 유동적인 문양에 균형과 조화, 리듬 등 형식원리에 의해서 전통적 사상을 배제한 추상적이고 리드미컬한 팜프파탈 이미지 색상의 결합과 아르누보에 흐르는 듯, 유동적인 선, 최소한의 선으로 표현되는 자연적 묘사, 비대칭적인 묘사, 나뭇잎 모양에 형태와 육감적인 모양은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양의 조형적 표현을 조형 요소로 자연스럽게 변형시켰다. 주로 직선보다는 구불구불하고 서로 교차되는 곡선이 사용 되었는데 이유는 곡선을 통해서 자연에 에너지를 발견하고 사물의 본질이나 창조활동에 무한 한 과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143) 1890년대는<그림3-15,16>는 가치관 변화가 큰 시기이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는데 이는 그들에 스포츠웨어의 사치함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자전거,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에 대한 여성들의 새로운 열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편안하며 착용이 쉬운 의복을 요구하게 되었다. 짧아진 스커트, 편안한 자켓이나 셔츠웨이스트로 구성된 테일러드 슈트가 유행하였을 뿐 아니라 남성용 모자와 남성용 뺏뺏한 흰 칼라를 착용했다.¹⁴⁴⁾ 벨 에포크 시기 콜셋, 비치는 직물, 레이스, 바닥까지 오는 길이에 가운데 모자로 과도한 장식을 하였던 여성복은 1912년에 이르러서 여성 사회진출로 기능주의적 성향으로 변화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패션계는 침체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여성복의 본격적인 현대화가 이루어져 치마길이는 짧아지고 실질적이면서 기능적으로 변화하기 시작 하였다.

143) James Laver(1988), 『Cosume & Fashion』, New York : Thomas and Hudson, pp.208-211.

144) 이은지(2003), 「아르데코양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p.5.



〈그림3-15〉¹⁴⁵⁾테일러드슈트



〈그림3-16〉¹⁴⁶⁾스포츠의복



〈그림3-17〉¹⁴⁷⁾1900년 건강코르셋



〈3-18〉¹⁴⁸⁾배에단 바스크를 직선으로
복부까지 평평함

145) <http://blog.naver.com/jewel626/110048009724>

146) <http://blog.naver.com/jewel626/110048009724>

147) <http://blog.naver.com/jewel626/110048009724>

148) <http://blog.naver.com/jewel626/110048009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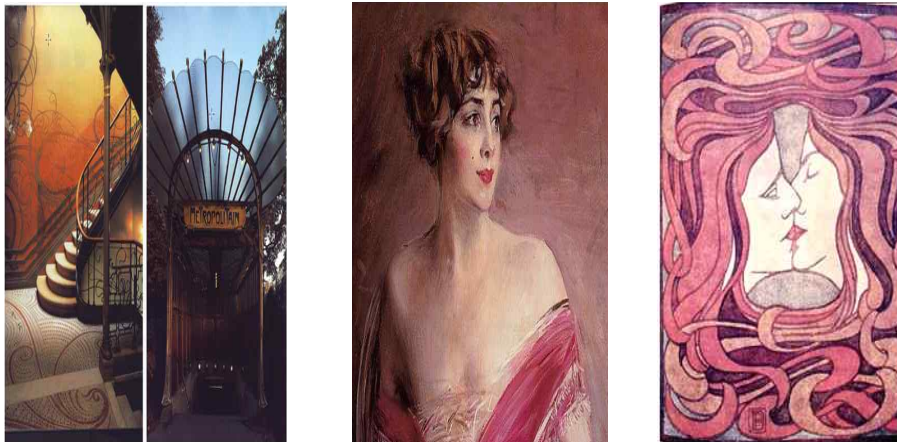
149) 20세기가 되자 머리와 모자는 상체의 악센트로 높이와 폭을 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태 중에서 풍파두르부인에 머리형태가 유행 하였는데 이것은 머리를 모자의 빔<bim>처럼 이마위에 펴고 인모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묶거나 땀은 것을 그 위에 올려 변화 시킨 것이다. 머리는 이때 유행한 마셀 웨이브<marcal wave>라는 특수한 기술에 의해 파도 모양으로 곱슬 거리게 정리 했다. 모자는 사뵈가<chapeau> 큰머리와 더불어 평평하고 폭 넓은 것이 사용되었다. 150) 또한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그림3-17,18>곡선 문양으로 짠 에스커브<S-cuve>실루엣의 곡선 감각을 살리고 가슴을 허리까지 아래로 처지게 위치시키면서 벨트의 앞 중심을 브이<V>자로 뾰족 하게 디자인 하였다. 색채에 있어서 파스텔 계통의 부드러운 색조를 사용하였으며 소재는 쉬폰, 오간디, 차이나, 레이스 등을 선호하였다.

151) 아르누보는 엘리트적이면서 대중적, 사적, 공적, 보수적, 급진주의적, 요로우면서 단순하고, 전통적이고 현대적 다양한 모습과 엘리트 성향을 띄며, 근대성과 전통, 자신감, 퇴보와 발전, 보수적인 만족적 정체성과 급진적인 국제주의를 모두 포괄하는 양식으로 아르누보이상의 갖는 완벽한 표현은 인간과 자연의 통일이라 할 수 있었다.

149) 이정옥 외(1987),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330.

150) 권석봉(2006), 「벨에포크시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얼굴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151) 스티븐 에스커릿, 전제서, p.67.



〈그림3-19〉 152)빅토르

오르타의 건축적 곡선

〈그림3-20〉153)곡선의 헤어

〈그림3-21〉154) 입맞춤

또한, 155)휘슬러(Whistler, James A.M)에 의해 전해진 일본의 영향으로 일본 목판화에서 보여 지는 정교한 세부조사, 색이나 패턴에서 비대칭적인 요소와, 강하고 곡선적인 윤곽선을 강조하고 받아들여 형태를 표현했다. 자포니즘(Japonisme)이라 불리는 일본미술의 영향은 아르누보에 가장 중요하게 미친 영향이라고 표현된다.

156)아르누보의 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과다한 장식을 배제하고 본바탕과 장식과의 적절한 조화를 중시 하였다. 이처럼 불필요한 장식을 단순화 시키고 자 하는 욕구에는 의복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되어있다고 한다. 아르누보 패션은 패션디자인의 황금기인 시대를 맞으면서 예술과 복식이 결합되어 예술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이와 알맞게 벨 에포크시대의 선구자적인 디자이너는 영국의 디자이너 루실과 프랑스 대표 폴 푸아레가 있다. 현대패션의 시작을 알리고 157) 여성들의 코르셋을 제거하고 새로운 품을 제시한 모드계의 혁신으로 받아 들여 졌다.

152) <http://blog.naver.com/apigdesign/130105502376>, <http://cafe.naver.com/voda/1243>

153) <http://blog.naver.com/apigdesign/130105502376>, <http://cafe.naver.com/voda/1243>

154) <http://blog.naver.com/apigdesign/130105502376>, <http://cafe.naver.com/voda/1243>

155) Vinenne Beder(1985), 『Art Nouveau Jewelry』, New York : E. P. Dutton, p.12.

156) 자세한내용은 정홍숙, 전개논문, pp.33-34.

157) 자세한내용은 나은선, 전개논문, p.35.



〈그림3-22〉¹⁵⁸⁾S실루엣



〈그림3-23〉¹⁵⁹⁾모자장식



〈3-24〉¹⁶⁰⁾ 주름장식

158) <http://www.100megspop3.com/adira/1900s.htm>

159) <http://www.100megspop3.com/adira/1900s.htm>

160) <http://www.100megspop3.com/adira/1900s.htm>

[표3-1]¹⁶¹⁾버슬실루엣과코르셋,헤어장식,장신구유형



161) <http://blog.naver.com/gene0825?Redirect=Log&logNo=40030118064>

[표3-2]¹⁶²⁾ 시대별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모습과 장신구들의 유형



162) <http://blog.naver.com/feelmine?Redirect=Log&logNo=110013050481>

〈표3-1,2〉은 19세기 여성들의 장신구와 헤어스타일 변화와 장식성 표현으로 모자와 악세사리가 표현 되었으며, 19세기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여성들 사회 참여가 늘어나며 의상의 간편화, 조형성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기능적인 발달과 근대 모더니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163) 20세기가 되면서 여성 헤어스타일은 마치 만화경과 같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탑과 같은 킵슨걸 풍파두르〈Gibson-girl pompadour〉에서 시작해서 보브와, 50년대 초기에는 지난18세기 말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과장된 묶은 머리로 돌아갔다. 미용사들은 마리 앙트와네트 시대이래에 오랜만에 각광을 받게 되었고, 서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내기위해 살벌한 경쟁을 하였다. 결국 실제 문제는 그 스타일을 누가 하느냐에 달렸으며, 할리우드 스타들은 자동적으로 스타일을 만들어 냈는데, 가르보〈Garbo〉, 메리픽포드〈Mary pickford〉, 콜린무어〈Collen Moore〉, 진 할로우〈Jean Harlow〉, 클라라 보우〈Clara Bow〉등 이 들은 메리여왕〈Queen Mary〉, 반더빌트〈Vanderbilt〉부인 혹은 그레이스 쿨리지〈Grace Coolidge〉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다. 후에 유럽 스타들도 동등 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거대한 공공성의 물결을 타고 클레오파트라 룩과 같이 새로운 스타일을 미용사와 광고 담당자가 만들어내려고 하였다. 신문이나 잡지는 여성들이 자기가 좋아하건 그렇지 않던 간에 다음 시즌에는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실었다. 때때로 여성들은 잡지에 나온 스타일로 하거나 그렇지 않게 스타일을 했다. 확실한 것은 여성들은 그것을 변형 시켜서 했다는 사실이다.

163) 리처드 코슨(2010), 『Fashion in Hair: 헤어패션5000』, 김광숙 외 번역, 서울 : 동서문류, p.608.

1-2. 아르데코의 영향

164) 1909년 파리공연으로 대단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러시아 발레단의 무대의상에 관계했던 피카소, 드랭, 브라크, 에른스트, 기리코, 가보, 박스트 등의 입체파, 초현실주의들의 당대의 대가들 중에서도 박스트가 디자인한 의상의 현란한 색채와 과잉된 면이 있으면서도 잘 다듬어진 장신구들은 장식패션의 유행을 오랜 동안 풍성하게 지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165) 18세기 산업혁명은 직조, 방적기술의 발전을 가져와 동양풍의 직물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유럽각지의 상류 계급사이에 이국취향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중국풍, 터키풍 등이 예술전반의 주제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풍의 유행은 복식뿐만 아니라 건축, 조각, 회화, 공예품에 이르기까지 예술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유행하게 되었고, 이를 시누아즈리<중국취미>라 불렀다. 특히 중국건물의 파고다는 유럽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고 쉽게 인식된 중국의 상징물이 되었다.

동양풍의 상징물 중 고갈형태의 모자, 남자들의 피그테일<Pigtail>, 가발 등이 있는데, 중국에서 전해진 부채가 귀부인들에게 중요한 장신구로 사용되었다. <그림3-25,26>의 조형성에서는 아르데코양식으로 아르누보의 유동적인 선과는 반대로 직선적이며 모더니즘적인 단순성의 기하학적인 특징으로 조형요소로는 점, 선, 면, 색, 형으로만 표현한 칸딘스키로 대표되는 추상성이 있으며, 사물을 수평, 수직으로 환원한 대칭의 배치와 삼원색과 무채색을 사용한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몬드리안으로 대표되는 신 조형주의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이국취미를 대표하는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의 복식과 예술사조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아르데코의 주요색상인 강하고 밝은 색조는 미술의 표현 양식인 야수주의와 입체주의로부터 확산된 오리엔탈리즘을 볼 수 있다. 폴 푸아레의 <그림3-33,34> 기모노 코트가 소개되고 중국의 만다

164) 김민자(1986), 「1960년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제10권 1호, pp.69-84.

165) 정홍숙(2000),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복식문화에 미친 인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0권 제4호, p.161.

린소매 의 실크 누비 자켓이 유행하였다. 복식에 있어서 많은 영감을 디자이너에게 주었고 166) 20세기 이 후에도 영국과 미국의 중국에 관한 개방정책으로 서구의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일본은 표현주의 아르누보를 통해 1856년에 패션이 알려졌다.

폴 푸아레의 패션 모티브 창작은<그림3-33,34> 167) 러시아 발레단에 이국적인 요소가 더해져 그 시대 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했으며, 러시아 발레단에 공연으로 인해 소개된 의상과 화려한 이국풍의 영향으로 터키풍인 하렘 팬츠와 터번 등은 곧바로 디자인에 적용되어 의상 실루엣 변화를 가져왔고 이국적인 강렬한 색채배합은 새로운 조류로 변화를 시도하게 하였다. 그리스 스타일과 동양에 이국풍은 당시의 새로운 조류로 푸아레를 비롯한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었다. 168)현대복식의 개척자로 불리는 폴 푸아레<Poul Poire>는 나폴레옹1세 시대의 엠파이어 스타일 이래 처음으로 코르셋과 패티코트를 없애고 현대 직선적 실루엣을 선보인 장본인이다. 그는 중세 이래 오랜 기간 여성의 육체를 강제로 조이게 하던 코르셋을 없애고 새로운 여성의 매력을 창조했다.



<그림3-25> 169)칸딘스키



<그림3-26>170) 몬드리안

166) 권기영(1994), 「현대복식에 나타난 아시아 에스닉 패션」, 경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167) 자세한내용은 나은선, 전개논문, pp.38-39.

168) Helen L.Brockman, 『The Theory of Design』, John Wiley&son.lac.ny, p.36.

169) <http://cafe.naver.com/arttygenclub/182> <http://cafe.naver.com/leekyuchan2009/1201>



〈그림3-27〉입체적



〈그림3-28〉자연스러움



〈그림3-29〉¹⁷⁰⁾ 기하학적



〈그림3-30〉자연스러움



〈그림3-31〉직선적



〈그림3-32〉곡선적

170) <http://blog.naver.com/maillsangja?Redirect=Log&logNo=100061488406>

171) <http://blog.naver.com/jewel626/110048009724>



〈그림3-33〉¹⁷²⁾이브닝드레스



〈그림3-34〉¹⁷³⁾엠파이어드레스,동양성

174) 19세기 기간 동안에 복식양식에 있어서 라인(Line)의 중요한 변화들이 여자복식에도 일어났다. 혁명전 패션변화는 18세기말 프랑스대혁명 직후에 발생했던 슈미즈 가운데서 확장한 엠파이어 허리의 도래였다. 엠파이어 라인 이후 부터는 복식 양식의 변화가 계속해서 진화적 패션으로 일어났다.

폴 푸아레의 여성적인 패션은 1908년에서 1911년에 여성들의 코르셋을 벗어던지게 하는 혁신적 허리선 라인이 가슴선 바로 밑까지 올라간 엠파이어 스타일<empire style>이 선보이고 러시아 발레의 영감을 얻은 호블 스커트와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유형의 스커트로 여성들은 종종 걸음을 걸어야 했다. 또한 〈그림3-36〉버슬형 스타일에서 스커트의 폭이 좁혀진 페그탑 스커트가 등장을 하고 이국적인 스타일의 의상을 그대로 옮긴 엠파이어튜닉, 기모노, 하렘스타일의 고급의상으로 완벽한 이국적 정서의 풍을 푸아레의 취향으로 널리 알려졌다.

따라서 175) 단순미는 최소의 조형수단으로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직선적 구조일 때 느껴진다. 외형적으로 단순미를 나타내는 특징은 〈그림 3-37〉직선, 사선으로 인한 H라인, 장식으론 트리밍 거의 없는 평면일 때 주

172) <http://blog.naver.com/suji307/50046382273>

173) <http://ashleydude.blog.me/110137166023>, <http://blog.never.com/ssangel/150051217857>

174) 곽태기(2008), 「사회 변혁기에 발생된 패션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2.

175) 김은덕(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조소 표현기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69-70.

로 표현되며 무지의 단색 직물이나 간결 되고 단순한 패턴일 때 더욱 효과가 증대 된다. 176) 푸아레는 <그림3-38>의 엠파이어 시대이후 여성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을 시켰으며 , 코르셋의 추방에 따른 푸아레의 최초작품은 고대 그리스 의상에서 힌트를 얻은 스트레이트 혹은 헬레닉 스타일이었다. 이 의상은 허리를 강조하지 않고 몸 전체에서 흐르는 우아한 드레이퍼리를 강조한 것으로 코르셋 대신 넓고 가벼운 브레이저를 도입하였다.



<그림3-35>¹⁷⁷⁾하렘팬츠



<그림3-36>호블스커트



<그림3-37> 기모노



<그림3-38> 미나렛원피스

176) 안선희(2007),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특성과 패턴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31.

177) <http://blog.naver.com/rkdwlgm108/150136556867> (그림출처: 그림3-35~38)

그러므로 1910년과 1920년 사이에서의 실루엣은 단순성, 동양성, 복합성을 나타내고 있고 단순성은 입체주의 영향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응용한 단순하고 추상적인 선과 면 형태로 표현되며, 동양성은 중국과 일본 문화의 영향으로 현대의상 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양풍인 이국적인 미를 표현하는 기모노 스타일은 비단과 같은 광택 있는 소재와 함께 현대적으로 디자인되어 나타났다. 복합성은 아르데코양식에 나타난 다양한 실루엣을 과장된 형태로 디자인하거나 야수주의의 강렬한 원색과 동양적인 문양 및 색채들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178) 헤어스타일에서도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전시대의 과잉장식에서 형태까지 단순한 형태의 스타일이 선보이게 되었다. <그림 3-39> 뒷머리를 틀어 올린 탑, 네이프(nape) 등 다양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풍파드루 스타일과 모발을 한 가닥으로 땡아 두른 트레머리 스타일등이 유행하였다. 또한 미디엄 길이의 웨이브 머리가 잠시 유행하기도 하였다.

1805년부터 1820년 사이에는 한 쪽으로 묶어 올렸기 때문에 한쪽은 컬을 하여 부풀린 상태로 올렸다. 179) 당시 헤어스타일은 가르마를 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두상에 딱 붙여 빗어 올려 머리 뒤에서 정리해 양쪽 귀 밑에서 애교머리를 내 놓는 방식이었지만, 20세기 아르누보시대에 유행했던 풍파드루는 <그림3-40> 18세기 보다 느슨한 형태에 앞머리는 이마위로 빗어 올리고 기다란 뒷머리는 뒤에서 올려 높이고 고정 시켰는데 가끔은 백 콦 효과를 주었고 뒷머리는 머리카락을 뒷부분에서 묶어 틀어 올린 쉬농으로 마무리 했다. 아르누보의 조형양식에 발달로 아직은 곱게 치장된 장식성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르누보양식에 곡선미는 느슨하고 부드럽게 치켜 올린 머리형태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나타난 것이라 보여 진다. 180)장식이라는 용어는 오머멘트<omament>, 라틴어 오멀<omare>, 장식하다. 라는 뜻으로 유래된 말로 장식물이나 장신구, 혹은 장식무늬를 지칭하는 말이다.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전반적인 실루엣, 디테일, 직물의 특성을 미술사적인 개념의 시각으로 <표3-3>를 작성했다. 벨 에포크시대의 패션의 특성 중 장식적인 면의 특성을 알고 조형성에 의미가 의복 시대별 여성성에 아름다움과 우아함

178) 곽형심 외, 전게서, p.229.

179) 상계서, p.225.

180) 타타르키비츠(1999),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휴주 옮김, 서울: 미술문화, p.206.

으로의 기능면과 헤어 장식적인 면과 오브제¹⁸¹의 특성으로 인한 실루엣 변화를 통한 미적 기준에 변화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림3-39〉¹⁸¹트레머리



〈그림3-40〉¹⁸²퐁파두르〈마담퐁파두르〉



〈그림3-41〉¹⁸³엘리자베스테일러



〈그림3-42〉¹⁸⁴이사도라덩컨

181) <http://blog.naver.com/gracealice/110041008424>

182) <http://cafe.naver.com/bethesdaHair/285>

183) <http://cafe.naver.com/rcsik/37826>

184) <http://jugangyopo.blog.me>

[표3-3] 벨 에포크시대 미술사로 본 패션, 헤어의 영향에 대한 특성분석

아르누보 미술사	년도	아르누보 특징	아르데코 특징
전통적 심미주의적 상징주의 표현주의 인상주의	1890~ 1914	여성적 스타일(S커브) 상류사회 여성스타일 코르셋착용 장식성(꽃, 레이스, 깃털) 파스텔	모던스타일(직선) 브레지어착용 신조형주의 원색사용
		스 타 일	스 타 일
아르데코 미술사	1907~ 1920	패션&헤어 김슨걸 스타일 테일러드 수트 에드워드안 블라우스 퐁파두르	패션&헤어 엠파이어 스타일 기모노 튜닉스타일 쉬농
기하학적 모더니즘 추상적 입체파 야수파			

출처: 본인작성

1) 헤어장식의 특성

지금까지 헤어디자인 특성을 미술사조인 아르누보에 곡선성 실루엣과 아르데코의 직선적 실루엣 영향과 오브제 역할로는 아르누보의 특징인 꽃잎과 식물의 모티브와 기하학적인 선의 유형인 신조형성의 모티브를 배경으로 한 패션과 헤어의 디자인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185)아르누보 양식에서 표현된 여러 모티브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화려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온 식물모티브에 주된 소재는 꽃과 넝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기적인 곡선이다. 이러한 곡선위주의 새로운 표현은 아르누보를 꽃의 양식, 물결양식, 당초양식이라 부르게 하였다.¹⁸⁶⁾ 넝쿨의 이미지는 담쟁이 넝쿨과 포도넝쿨이 그 주된 소재로 사용되었다. 넝쿨의 끊임없는 울동과 운동의 구성은 두 가지로 표현되었다. 첫째는 아르누보의 자연주의에 입각한 섬세한 묘사이고, 두 번째는 그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상징형으로 재창조된 형태이다. ¹⁸⁷⁾1910년-193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구에서 시작된 후기 아르누보에서 바우하우스 디자인 확립까지의 중간적인 장식양식, 명칭은 <장식미술>의 뜻이며, 1925년 양식<style 1925>이라고도 한다.

빈 공방, 큐비즘, 발레 뤼스 등에 착상하여 직선과 입체의 지적구성, 억제된 기하학적무늬에 장식성에 특색을 두었으나 수작업 중심에 단품제작 전통에서 탈피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식미술은 1920년 아르데코 영향으로 모더니스트적인 형태로<그림3-43,44,45> 디아 갈레프, 발레루스, 폴 푸아레의 의상패션, 무대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8)유리공예가로 유명한¹⁸⁹⁾르네랄리크는 아르누보시대 금속공예가로 그 이후 아르데코시대에는 유리공예가로서 활동한 장식미술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다. <그림3-46,47,48> 랄리크 작품들은 모두 장신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유형 성격으로 크게 나누어보면 정신적인 주제를 다루는 비교적

185) 김은정(2007),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성연구: 르네랄리크, 에밀갈레, 루이스 컴퍼트 피파니, 빅토르오르타 작품을 중심으로」, 『조형예술학 연구』, 11, p.16.

186) 자세한내용은 김은정, 상계논문, p.16.

187) <http://terms.naver.com/>, 미술대사전(용어 편)편집부, (1998), 한국사전연구소

188) 전용일(1994), 「Rene Lalique 의 금속공예」,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13집, 조형연구소(본 논문 출처), 자세한 내용은 김은정, 전계 논문, p.18.

189) 자세한내용은 김은정, 전계논문, pp.18-19.

비실용적인 경우와 자연의 사실에 충실한 장식적이며 기능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칼리크는 평소의 작업에서 늘 재료 자체의 시각적 효과와 작품 안에서 전체적인 조화를, 더 중요하게는 이들을 착용하는 여성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칼리크가 만든 많은 장신구 중에서는 자연의 사실적인 아름다움을 충실하게 담아낸, 순수한 시각의 아름다움과 장식성의 목적을 위하여 만든 많은 작품들이 있다. 어떠한 보석과 귀금속이라도 전체의 시각적 효과를 방해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풍요로운 영감의 원천은 자연이었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 다양한 현상들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구조에 근거해서 식물과 동물의 성장 과정을 관찰하여 찰스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에 입각한 자연주의적 방법을 사용할 정도의 꽃과 식물, 곤충과 여인도 많이 이용하였다.

한편, 〈그림3-51,52〉아라베스크문양의 기본적인 형태에 원에서 반복되는 취향은 기하학적인 것에서 나타나고 아라비아풍의 동양적인 문양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취향이며 헤어의 표현으로는 반복적인 웨이브의 단순성을 나타내고 있다. 야수파의 입체적이고 강렬한 색상에 이미지와 동양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절묘한 어울림에 의한 적절한 복합성은 현대 패션 이미지의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그림3-43〉¹⁹⁰⁾페그탑



〈그림3-44〉¹⁹¹⁾헤어장신구



〈그림3-45〉¹⁹²⁾오리엔탈

190) <http://blog.naver.com/suji307/50046382273>

191) <http://blog.naver.com/olgadia2005?Redirect=Log&logNo=140175050114>

192) <http://hyo7977.blog.me/100185313955>



〈그림3-46〉¹⁹³⁾보석장식



〈그림3-47〉¹⁹⁴⁾입체적효과



〈그림3-48〉장식성



〈그림3-49〉¹⁹⁵⁾ 보석장식



〈그림3-50〉¹⁹⁶⁾ 르네랄리크



〈그림3-51〉 보석장식



〈그림3-52〉헤어장식



〈그림3-53〉헤어장식



〈그림3-54〉헤어장식

193) <http://blog.naver.com/olgadia2005?Redirect=Log&logNo=140175050114>

194) <http://blog.naver.com/ssolssori/30030395873>, <http://blog.naver.com/heomung/40111492655>

195) 한국경제매거진(김재규의 앤티크살롱)

196) <http://blog.naver.com/apigdesign?Redirect=Log&logNo=130105502376> (그림출처 : 그림 3-50~54)



〈그림3-55〉197)아라베스크문양



〈그림3-56〉198) 웨이브 반복



〈그림3-57〉199)웨이브



〈그림3-58〉200)1920년



〈그림3-59〉201)



〈그림3-60〉202)

입체주의 미술과 건축의 기하학적인 조화와 곡선 이미지에 대한 색감으로
는 동양의 원색적 표현의 삼원색의 사용과 무채색의 표현으로 인한 어울림으로
헤어에 있어서는 아르누보양식에 의한²⁰³⁾ 현대 헤어디자인에서도 창조활동의
모티브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상징적 아르누보인 유기적 곡선과 자연적

197)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485862>

198) <http://cafe.daum.net/georre/Jsv/1558>

199) <http://cafe.daum.net/georre/1NL9/1162>

200) <http://skyblue2031.blog.me/50074611202>

201) <http://blog.naver.com/arcadium/80111063535>

202) <http://ashleydude.blog.me/110142011268>

203) 강정아(2009), 「아르누보 양식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모티브, 구성적 아르누보인 비대칭적인 구조, 신비적 아르누보인 부드러우면서 밝고 은은한 색조라고 분류 할 수 있는데 아르누보의 조형적 특징은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서 헤어디자인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초 실루엣의 변형으로 인한 여성들에 코르셋 해방, 벨 에포크시대에 물질적 풍부와 산업 발전에 의한 기계기술 발전은 여성인력에 노동성을 필요로 한 가부장적 세습인 악습에 의한 또 하나에 여성해방을 의미하며, 퇴폐와 향락으로 인한 심미주의와 상징주의의 미술양식 발전과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영향으로 인한 단순성으로 현대적 패션디자인에 실용적인 조형미를 살리고 모던한 라이프여성성의 매끄러운 선을 살린 디자인으로 재구성 되었다고 본다.

2) 실루엣의 특성

미술사조에 의한 헤어장식 특성은 아르누보 영향을 받은 소재와 아르데코 영향을 받은 기하학적이고 원색 바탕으로 강렬하면서 여성에 아름다운 곡선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않은 형태의 어울림으로 헤어장식에 특성적 표현에 정갈하고 화려함을 잃지 않은 르네상스의 꽃과, 나비, 뱀, 공작새 등 조류와 식물의 자연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복합적 표현은 건축에서도 나타나며 헤어의 표현에서도 울동감과 화려하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하면서도 모던한 이미지 창출이라고 보여 진다. 이모든 장식성 표현과 미술사조의 색감에서 나오는 이미지 표현을 실루엣과 형태감의 이미지로 이미지화 하여 세기말 패션과 헤어실루엣에 이미지상관의 관계를 현대의 이미지로 분류하여 실루엣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스타일을 다섯 개로 축소 분리하여 이미지화한 작품과 세기말의 스타일, 현대스타일, 실루엣, 장식표현으로 표 화하여 비교 분석한 헤어실루엣의 이해를 돕고자한다.

[표3-4] 파티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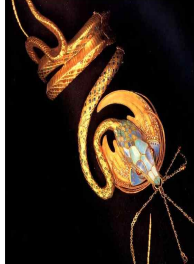
출처: 본인작성

204) 파티 스타일		현 대	실루엣	장식표현
	조반디볼리 니 1842-1931			반복적 곡 선성의 실 루엣과,화관 의 여성성 을 강조
	조반디볼리 니 1842-1931			곡선과 기 하학적 반 복과, 곡선 적헤어웨이 브의 여성 성 나타냄
	알폰스무하 의 아르누 보			자연스러운 자연에 이 미 지 와 의 장 식 성 을 강조한 화 려 하 면 서 절 대 미 의 순 수 성 을 강조
	알폰스무하 의 아르누 보			반복적 곡 선과신비스 러운,색상에 은은한 화 려함을,자연 에 꽃들과 웨 이 브 의 C,S 표현

205) <http://blog.naver.com/jmierica?Redirect=Log&logNo=70116041430>
http://run_fraidi.blog.me/20167694866
<http://cafe.naver.com/voda/1243> , <http://langlangkorea.com/120117399248>

[표3-5] 탑노트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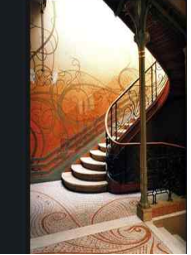
출처: 본인작성

205) 탑 노트 스타일		현 대	실루엣	장식표현
	조반디볼디니 1842-1931			소 용 돌 이 치 는 듯 반 복 적 이 먼 서 리 드 미 결 한 표 현 으 로 우 아 함 의 장 식 임
	조반디볼디니 1842-1931			자 연 스 리 우 면 서 흘 러 내 리 는 듯 한 그 러 면 서 도 단 순 하 면 서 화 려 함
	조반디볼디니 1842-1931			구 불 굴 한 보 석 장 식 의 표 현 과 헤 어 웨 이 브 시 크 함
	조반디볼디니 1842-1931			부 채 모 양 의 얹 어 놓 은 듯 한 모 던 하 면 서 심 플 한 장 식 의 헤 어 실 루 엣

206) <http://blog.naver.com/langlang2020?Redirect=Log&logNo=120117399248>
<http://blog.naver.com/designmecca?Redirect=Log&logNo=120131330064>
http://run_fraidi.blog.me/20167694866 , <http://cafe.naver.com/voda/1243>

[표3-6] 보브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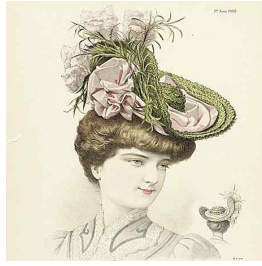
출처: 본인작성

206) 보브스타일		현 재	실루엣	표현장식
	근현대 20 세 기 초			직선과 기하학의 오묘한 실루엣의 표현을 통한 언발란스한 이미지의 모던
	근현대 20 세 기 초			동양에 오리엔탈 표현의 직선에 단순함과 표현을 통한 여성미를 강조
	근현대 20 세 기 초			반복적이지만 일률적인 각의 규칙성에 표현과 곡선과 직선의 대조적 표현
	근현대 20 세 기 초			아루누보와 아르데코의 장식적 복합성을 시크한 여성에 미와 미니멀한 조화성

207) <http://blog.naver.com/bgaggai/50129129830>, <http://cafe.naver.com/clubcircle/6534>
<http://blog.naver.com/sahara0117?Redirect=Log&logNo=10013865445>
<http://cafe.daum.net/georre/8AUE/832>

[표3-7] 헤어스타일과 모자

출처: 본인작성

207) 헤어스타일과 모자		현 대	실루엣	장식표현
	근 현 대 19 세 기 후			자연 소재적 모 티브의 화려함 을 더한 은은한 곡선에 자유로 움과의 조화를 헤어스타일에 부 드러움 강조
	근 현 대 19 세 기 후			깃털소재에 장 식을 더한 동양 에 멋과 더불어 이국적 향기를 자아내게 함
	근 현 대 19 세 기 후			꽃과 풀을 장식 화한모자와 풍 파두르 헤어스 타일의 신여성 성과 곡선과직 선의 다채로움 에 표현
	근 현 대 19 세 기 후			건축물의 둥근 부분에 접친 곡 선과 웨이브에 반복성을 나타 낸 부드러움

208) <http://blog.never.com/bgaggai/50129129830>
<http://cafe.naver.com/clubcircle/6534>
<http://blog.naver.com/sahara0117?Redirect=Log&logN10013865445>
<http://cafe.daum.net/georre/8AUE/832>

네 개의 표를 통한 뽀피부르주아의 미술사배경을 통한 패션과 헤어의 특성을 장식성과 실루엣의 영향을 받은 이미지를 현대의 헤어이미지와 비교하여 실루엣 표현기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는 근대화예 헤어의 특성과 현대의 헤어특성에 차이를 실루엣의 복잡성인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색상 특성과 선의 질감표현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는 곧 벨 에포크시대에서 근대 1920년을 중심으로 뽀피부르주아의 성향별 유형분석 배경을 통한 라이프 생활사를 그들의 뷰티트렌드에 이미지를 고찰문헌의 자료를 토대로 여가생활과 문화의 대세적 흐름을 주축으로 한 패션의 헤어디자인 특성을 미술사 배경을 통한 모티브를 형태와 표현기법에 따라서 살펴보았다.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점차 패션 헤어에 장식적 흐름이 단순하고 편리하면서 여성 이미지에 흐름은 벗어나지 않는 선에 한한 기능적인 패션과 간단하면서 멋스러운 짧고 모던한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근대 미술사의 영향은 뷰티의 장식적 흐름으로 화려하고도 사치스러운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으며,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색감과 정도의 차이로 형태의 느낌에서 어우러짐의 절묘함과 뚜렷한 선에 질감을 소재와 장식에서 엿 볼 수가 있다.

IV. 뽀피부르주아 21세기 헤어 디자인 연구사례 제안

앞장에서 미술사배경을 통한 헤어 장식과 실루엣 변화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현대적 스타일과 모티브를 통한 비교분석 표를 통한 파티스타일, 탑노트 스타일, 헤어스타일과 모자에 자료를 1920년대의 일러스트와 현대의 헤어스타일 실루엣모티브를 통한, 미니 멀 헤어스타일을 나타낸 자료의 연구를 정리하여 표화 하였다.

IV장에서는 그 동안의 문헌적 고찰과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형식과 예술 배경으로 새로운 현대미니 멀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부여한 헤어디자인에 있어서 미술사조 특성을 가미한 작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화려하고 장식성의 주안을 둔 스타일에서 좀 더 대중적인 감성에 영향을 둔 모던한 실루엣 모티브들을 작품에 연출하여 근대 뽀피부르주아의 헤어 디자인에 염두를 두었던 작품과 다시 현대 뽀피부르주아의 미니멀한 헤어 디자인 작품을 연출하여 21세기 뽀피부르주아의 헤어디자인 스타일을 제안하는데 염두를 두었다.

II 장에서의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배경을 통한 뽀피부르주아의 정치, 상업, 대중, 귀족, 자유주의 유형의 배경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 정치적배경의 유형에서는 매니시룩으로, 상업적배경의 유형에서는 소피스티케이트룩으로, 대중성유형의 배경에서는 모던 룩으로, 귀족주의유형의 배경에서는 로맨틱 룩으로, 자유주의유형의 배경에서는 보헤미안룩으로 표현하였다. 현대의 감각으로 뽀피부르주아의 특성을 재해석한 10점의 작품을 형상화하여 제작하였다.

작품의 색상은 시대 유형에 맞는 서구 여성의 헤어 색과 동일하게 하였고, 약간의 변형으로는 미술사의 입체감을 고려하여 부분부분 색상에 강조를 더했다. 헤어디자인 작품의 구도는 정형적이고 안정적인 구도에 비해 비대칭적인 스타일과 모던한 감각을 현대의 시각적 감각으로 일깨우고 시대의 대표 스타일을 절충한 , 유형적 배경의 색채와 실루엣 표현을 작품에 나타내고 고급문화에서 대중문화의 트렌드 감성을 21세기 뽀피부르주아의 헤어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근대 뽀띠부르주아의 헤어디자인 이미지를 21세기 뽀띠부르주아의 헤어 트렌드를 제안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헤어 룩으로 제안하고, 근대 상류층 여성의 뽀띠부르주아에 회화 속 초상화를 통한 작품 재연과 또한 작품의 초상화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미니멀 하게 작품을 연출하여 현대헤어 트렌드에 제안을 하였다.

작품 모델 선정은 사람으로 대처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는 마네킨에 작업을 하였고, 20대 초반 여성의 얼굴만 모델화 하여서 컴퓨터와 이미지 작업을 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1. 작품의 제작 및 설명

1. 작품 1

1) 작품의 의도

작품1은 뿌피부르주아에 성향별 유형배경에서 정치성과 이에 따른 여성의 남성적 표현에 성격을 띤 미술사에서 보여 지는 상류층여성 초상화의 이미지에서 자신감과 당당함의 표현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에서 느끼는 자유분방함에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한다. 근대 스타일을 매니시룩 이미지로 접근하려 하였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위적이고 세습적인 습관에 여성 이미지의 전환을 고급스럽게 연출하기위해서 색감 이미지로 표현하려 하였다. 정치성 배경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여성에 당당함과 남성성에 이미지의 딱딱함을 근대표현에서의 재현으로, 어두운 색감과 조화로운, 하지만 여성성은 잃지 않는 웨이브의 표현은 가미를 하였다. 현대표현에서의 화려한 색감과 비대칭성 스타일의 구도를 잡고 연출하였으며 화려한 웨이브의 장식적 표현과 규칙적 반복에 형태를 부드러운 선에 이미지로 나타냈으며 실루엣에 직선과 웨이브의 선을 과잉장식으로 작품에 나타내었다.



〈그림4-1〉208)작품 1

『테일러드슈트를 입은 상류층여성』



〈그림4-2〉 209) 작품 1 모티브

『매트로 폴리탄』

208) http://run_fraidi.blog.me/20167694866

209) <http://cafe.naver.com/interiordesignbook/191>

[표 4-1] 근대 작품 1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근대 매니쉬 스타일	남성성, 단아함, 지성적, 활동성
색 상	다크 그린색상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앞머리 쪽을 가운데 가르마 아이론을 이용해 부피감과 웨이브
일 러 스 트	

[표4-2] 근대 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3〉 근대작품 1 정치적배경의 근대 매니시 스타일

2) 작품 설명

동양적 선을 가진 20대 초반에 여성을 모델로 19세기 근대 뿌띠부르주아의 정 치적 성향배경 모티브를 정하고 초상화에서 상류층여성의 모습을 재현해 보았다. 이는 미술사적 영향에서 보여 지는 아르누보의 곡선성 이미지와 전통성을 거부한 파격적인 실루엣 이미지를 반영한 곡선성과 색상의 화려함을 모델에게 연출하였다. 단아하면서 지적이고 개방적인 면을 고려하여서 흥미를 더해주는 스타일로 형태성을 보여주었다.

다크한 색상에 이미지를 입히고 실루엣에 곡선성을 살린 여성성과, 단아한 스타일의 표현을 자아내고자 프론트 부분을 이등분하여서 물결웨이브로 강조를 하였다. 동양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해서 쪽을 두르듯이 헤드라인 부분을 아이론으로 볼륨감을 주어 하나로 묶어 보았다. 사이드부분에 웨이브에 부분을 백 부분과 연결하여 웨이브에 꼬리로 마무리를 하였다.

현대적 스타일에서는 프론트 부분을 좀 더 과감히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론을 용하여 장식성을 표현하였다. 근대에서 보여주는 단아하고 지적인 연출보다는 현대에서 볼 수 있는 여성들에 지적이며 우아한 과감성을 직업에 당당함으로 표현하여 나타내고자 했다. 백 부분에 포인트를 주므로 화려함보다는 선의 역동성과 기하학적인 선의 운동감을 표현하고, 반면에 여성 실루엣인 곡선에 표현과 직선적 조화를 나타내고자 방향성을 살려 아방가르드 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당당함에서 나타난 자신감으로, 팜프파탈 이미지의 표현을 정치성 배경을 둔 매니시풍 표현으로 근대의 상류층여성에 모습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자연스러움을 현대 모습에서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표현에서 보여 주었다.

[표4-3] 현대작품1 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근대 매니시 스타일	남성성, 단아함, 지성적, 활동성
색 상	검은색, 부분 보라톤 매니큐어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양사이드부분을 물결웨이브의 효과를 주고 백 부분은 화려함의 장식성을 살리기 위한 기법으로 이미지의 지성 성을 연출하였다.
일 러 스 트	

[표4-4] 현대 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4〉 현대작품 1 정치적배경의 현대 매니시 스타일

2. 작품 2

작품2는 뿌띠부르주아에 자유주의적 성향유형 배경에서 나타나는 틀에 억매이지 보다는 문명사회에서 느끼는 기계적이고 반복성에 대한 반발을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에 대한 헤어디자인을 연출하고자 하였다. 상류층여성 초상화에서 풀어진 느낌에 헤어디자인과 자연스러운 색감에 연출은 근대 재연을 하는데 있어 뭔가 재미를 주려고 하였다. 약간은 부조화로 보이지만 프론트의 헤어장식을 한 이미지 연출을 의도한 색감의 밝은 면을 여성 웨이브의 표현에서 흐트러짐을 엿 보이게 작품에 반영하였다.



〈그림4-5〉²¹⁰⁾ 작품 2 이미지
『상류층여성의 초상화』



〈그림4-6〉²¹¹⁾ 작품 2 이미지
『아르누보 건축물』

210) http://run_fraidi.blog.me/20167694866

211) <http://blog.naver.com/thepichichi?Redirect=Log&logNo=39907393>

[표4-5] 근대작품1 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근대보헤미안스타일	과장성, 장식성, 개방적 스타일
색 상	부분브리지,노란갈색톤, 옐로우오렌지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프론트 부분에서 탑 포인트 부분까지 삼각블로킹을 한다. 사이드에서 이어부분까지 나눠놓는다. 백 부분을 깨끗하게 빗어 묶고, 아웃 컬로 만들어 놓는다. 오른쪽사이드부분을 왼쪽으로 아래부터 위로 빗어 올린다. 나누어놓은 탑 포인트 부분의 헤어와 커다란 웨이브를 형성, 장식성을 과장해 놓는다.
일 러 스 트	

[표4-6] 현대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7〉 근대작품 2 자유주의적 배경의 근대 보헤미안 스타일

2) 작품 설명

작품2는 발랄하고 활달한 밝은 톤 색상인 옐로우 오렌지 색상으로 헤어 형태를 만들고 벨 에포크시대 장식성에 스타일을 돋보이기 위한 헤어의 극대화를 더하여 이미지에 변화를 꾀하려 하였다. 문명사회 발달과 더불어 기계적인 사회 일환으로 변질되어가는 이미지 변화를 헤어스타일에서 자유로운 형태에 이미지를 엮어 보이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밝은 옐로우 오렌지의 색상을 입히고, 위빙을 떠 브리지를 넣어서 더욱 더 개방성을 보이게 하였으며, 장식적인 특성을 살려 두상의 탑 포인트를 삼각형으로 블러킹 하여 페이스 부분으로 모발을 극대화 하였고, 백 부분은 깨끗하게 빗어 아웃 킬로 마무리하여 이미지의 세련미를 더하려 하였다. 사이드 부분웨이브는 흘러내리는 듯 한 느낌으로 장식성을 화려하게 하기위해서 과장된 극대화를 연출해 놓았다.

현대적인 스타일에서는 정렬을 강조하기 위한 색감으로는 마호가니와 다크레드 브라운색으로 입히고 근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장식을 가미하기위한 블로우 웨이브의 기법을 이용하였다. 언발란스 한 스타일과 부조화에 형태의 이미지는 도발적이고 자유분방함을 위한 연출이고 근대 헤어장식을 이용한 웨이브의 실루엣을 이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벨 에포크시대의 자유적 배경에 이미지를 보헤미안의 자유분방함으로 연출 하였다.

[표4-7] 현대작품2 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현대보헤미안스타일	정열적, 자유분방함, 언발란스
색 상	마호가니, 다크레드
재료 및 도구	칼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프론트부분 가운데 가르마를 정해놓고 왼쪽부분 헤드라인부분의 헤어를 고아놓 는다. 왼쪽부터 블로우드라이로 웨이브를 잡는다. 오른쪽헤어를 부분부분 꼬아서 형태를 잡아놓는다. 왼쪽헤어와 연결하여 웨이브의 형태감을 장식한다.
일 러 스 트	

[표4-8] 현대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8〉 현대작품 2 자유주의적 배경의 현대 보헤미안 스타일

3. 작품 3

1) 작품의 의도

작품3은 뽀피부르주아의 상업적 성향유형에 배경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흐름과 영향을 받은 뷰티트렌드의 이미지를 상류층여성에 초상화에서 보여 지는 우아함과 지적인 모습으로 연출 하였다.

근대 트렌드의 색감을 표현하기위해서 색감의 표현을 다양하게 나타내었다. 선 호도를 높인 색감에 표현과 개인의 개성보다는 대중성을 선호한 우아함과 세련미에 연출을 의도하고 사회 흐름에 순응하는 모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작품에 재연하였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연출하려는 작품으로는 색감 표현을 가장 대중적인 색감으로 선택하였고, 지성적인이미지의 모습을 연출하려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여성의 성숙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의 웨이브를 가늘게 늘어뜨렸으며 장식성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나타내었다. 벨 에포크시대 상업성의 성향유형에서 표현을 현대적 시각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여성미와 우아함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에 소피 스티케이트룩의 이미지 스타일로 작품에 반영하였다.



〈그림4-9〉 212) 작품 3이미지
『상류층여성의 초상화』



〈그림4-10〉213) 작품 3모티브
『아르누보 미술양식』

212) http://run_fraidi.blog.me/20167694866

213) <http://blog.naver.com/salamanca10/110020191713>

[표4-9] 작품3 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근대소피스트케이스트스타일	대중적, 지성적, 우아함, 세련미
색 상	붉은 레드 오렌지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프론트부분 가운데 가르마를 중심으로 2.5cm씩 양쪽에 비을 을 맞추고 블로킹을 해서 나눠놓고, 사이드 부분을 웨이브로 전체적으로 만들고 나 다음 백 부분을 꼬아서 묶어 전체적으로 장식성 을 연출하기 위한 웨이브의 형태로 고정. 스프레 이로 마무리한다.
일 러 스 트	

[표4-10] 근대 작품사진

출처: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11〉 작품 3의 상업적배경인 소피스티케이트 헤어스타일

2) 작품 설명

상업성에 유형배경인 이미지를 김슨걸인 헤어스타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 하여서 연출을 했다. 상류층여성에 초상화에서 풍기는 우아함의 표현과 지성미에 이미지를 부각하기위해서 웨이브 표현을 둥근 원형에 형태로 반복적인 선 움직임으로 일관성을 보였다. 레드오렌지 톤에 화려함과 밝은 이미지와 어울리는 세련미를 스타일로 형태성을 보여주었다.

현대적 스타일에서는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독특한 스타일로 연출을 하였다. 색감으로는 중간 톤에 브라운오렌지 톤과 보라색에 브릿지를 넣으므로 이지적인 도도함을 연출하였다.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대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난 높이 올려 묶은 스타일과 끝머리를 현대적 시각에서 다시금 연출을 해보았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나타 내기위한 헤어스타일을 곡선과 실루엣을 이용한 형태감을 나타내었다.

대중적 배경인 유형에서 나타내 보이고 싶은 벨 에포크시대의 김슨걸 헤어스타일을 근대적 표현에서 이미지를 재연해보고, 현대적 시각에서 소피스티케이트룩의 독특한 스타일로 표현해서 나타내었다.

[표4-11] 현대작품3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현대소피스티케이트	독특함, 개성적, 자존감
색 상	옐로우브라운, 보라색 매니큐어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프론트부분 가운데 가르마를 중심으로 2.5cm씩 왼쪽의 블로킹을 해서 나눠놓고, 사이드부분을 오른쪽으로 S라인으로 빚어 놓고, 오른쪽으로 빚어놓은 머리로 큰 원을 돌려서 기둥을 만들고, 앞 프론트의 장식을 한다. 백 부분은 묶어서 전체적으로 장식성을 연출하여 형태를 고정하여 스프레이로 고정한다.
일 러 스 트	

[표4-12] 현대 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12〉 작품 3의 상업적배경인 현대 소피스티케이트 스타일

4. 작품 4

1) 작품의도

작품 4는 뿌띠부르주아의 성향별 유형배경에서 대중성의 흐름을 따른 여성의 헤어스타일을 도도함과 섹시함을 연출하였다. 벨 에포크시대의 화려함의 즐거움을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서 찾았고 또한 뷰티의 트렌드의 이미지를 잡지나 광고형 포스터와 미술사의 초상화에서 나타내었듯이 작품의 연출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었다.

근대 색상의 레드계열인 오렌지 톤으로 대중성에 흐름을 나타내었고 ,도도하지만 지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해서 프론트 부분에 화려함을 입체적으로 형태감을 주었고 시대적 특성상 장식성의 화려함은 배제하지 않았다.

현대의 표현에서는 섹시함을 연출하기위해서 웨이브에 강도를 강하게 하여서 자기주장의 어필을 강하게 표현하려 했다. 금빛색인 하이레벨 톤으로 개방성에 성향을 보이고 현대적인 시각에서도 이미지의 과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식을 헤어에 화려함으로 강조하였다.

근대헤어스타일 재연과 현대시각에서에 헤어의 연출을 화려함과 섹시함의 이미지를 장식성의 형태감으로 작품에 나타내었다.



〈그림 4-13〉²¹⁴⁾ 작품 4 이미지
『상류층 여성의 헤어스타일』



〈그림 4-14〉²¹⁵⁾ 작품 4 모티브
『키스』

214) http://run_fraidi.blog.me/20167694866

215) <http://terms.naver.com/>, (두산백과:doopedia)

[표4-13] 근대작품 4의 일러스트와 제작과정

구 분	내 용
근대 모던스타일	도도함, 섹시함, 열정
색 상	레드오렌지, 레드 매니큐어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프론트 부분의 사이드 포인트 부분과 탑 포인트 부분의 둥글게 원을 그어 블로킹을 하고, 전체적으로 백곰을 넣고 깨끗이 빗어서 오른쪽으로 모아서 묶는다. 커다란 망을 만들어 입체감을 표현한다. 백 부분 네이프 포인트 부분에 머리로 네 가닥 땅기로 마무리한다. 프론트 부분의 헤어는 S곡선의 도도함을 표현한다.
일 러 스 트	

[표4-14] 근대 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15〉 작품 4의 대중적배경인 근대모던스타일

2) 작품설명

대중성의 배경인 벨 에포크시대에 화려함을 현대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모던한 이미지를 도도하면서 섹시한 이미지 연출로 표현하였다. 상류층 여성 초상화에서의 모습은 매력적이면서 귀여운 여성에 이미지로 , 재연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선 색상의 화사함을 주었고, 레드오렌지 톤의 색상으로 열정을 나타내었다. 입체감을 표현함으로는 도도함과 섹시함을 부여한 작품을 연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선 백 부분의 목선을 드러내어 시원함과 아기자기함을 연출하였다. 네이프 부분의 땅기를 이용한 로맨틱 모습과 인테리어부분의 뱅 처리를 함으로 입체감과 장식의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현대적 스타일에서는 탑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어 백 부분으로 둥글게 블로킹으로 나눠놓고, 백 부분 헤어를 다운소라의 형태로 깨끗이 마무리 해 놓고 ,헤드라인부분에 헤어를 다운소라의 반대방향으로 빗어서 돌리고 마무리로 강한 걸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한 작품은 섹시함과 풍만함으로 표현하였다.

근대 강렬함과 현대의 섹시미를 강조한 작품을 강렬하고도 깨끗한 마무리로 연출하였다.

[표4-15] 현대작품 4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현대모던스타일	섹시함, 도도함, 지성적
색 상	금빛색의 하이레벨 톤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전체적으로 강한 컬 감을 살리기 위해서 파트를 상과 하로 나누어 백 부분을 다운소라로 깨끗이 빗어서 만들어주고, 사이드의 오른쪽 부분으로 프 몬트 위쪽으로 방을 만든다. 컬의 풍성함으로 이미지의 연출을 한다.
일 러 스 트	

[표4-16]현대 작품사진

출처: 본인작품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16〉 작품 4의 대중적배경인 현대모던스타일

5. 작품 5

1) 작품의도

작품5는 뽀피부르주아의 귀족지향성에 배경인 ,귀족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을 뷰티에 아름다움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헤어의 이미지를 장식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벨 에포크시대의 여성들 장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모자 장식을, 모자를 쓴 듯한 표현으로 이미지를 연출해 보았고, 극히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해 보았다. 색감의 고급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다크한 레드계열의 오렌지 톤으로 한결 세련미를 강조하였다.

현대 표현에서는 일상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움으로 색감과 디자인을 내추럴하게 연출하였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여성성을 강조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주안점을 두고 작품을 연출하였으며, 귀족지향성의 뽀피부르주아의 근대 헤어스타일 재연과 현대 스타일을 각각의 취향 품격으로 나누어서 형태감을 나타내었다.



〈그림 4-17〉²¹⁶⁾ 작품 5 이미지
『상류층 여성의 초상화』



〈그림 4-18〉²¹⁷⁾ 작품 5 모티브
『포스터』

216) <http://blog.naver.com/cyongjoon/100059559472>

217) <http://blog.naver.com/gyulcat?Redirect=Log&logNo=60099697977>

[표4-17] 근대작품 5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근대로맨틱스타일	우아함, 도도함, 도시적
색 상	레드오렌지, 레드 매니큐어, 플람톤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헤어라인부분을 탑 포인트 부분을 블로킹하고, 네이프 부분 4/1 지점을 묶어놓고 , 전체 적으로 소라엮으로 마무리 리한다. 네이프 부분은 장식으 로 마무리하고, 헤어라인부분도 모자장식으로 마무리하여 우아 함을 연출한다.
일 러 스 트	

[표4-18] 근대 작품사진

출처: 본인작성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19〉 근대작품 5 귀족지향주의배경의 로맨틱 스타일

3) 작품설명

귀족을 꿈꾸는 상류층 뽀빠리부르주아는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만능이지만 지성과 품위 있는 귀족 습성은 따라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 늘 모방 속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뷰티를 창조한다. 초상화에 상류층여성의 전체적이고 우아한 엘리건트한 모습을 작품으로 연출 하였다.

색의 표현으로는 화려함을 강조하기위해서 어두운 톤의 레드계열에 고급스러움을 나타내었고, 프론트 부분을 강조하기위해서 헤어라인 사이드 포인트를 기준으로 탑 포인트 까지 삼각으로 블로킹을 하고 , 네이프 4/1지점 왼쪽부분을 묶어놓고 오른쪽부분을 깨끗이 빗어서 핀으로 고정한 후 소라형 엽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프론트 부분의 헤어는 크게 원을 그려서 머리장식으로 마무리하고 끝의 머리는 백으로 깨끗이 펴서 입체감을 살려준다.

현대적 스타일로는 로맨틱 느낌을 살려서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위해서 전체적으로 헤어를 꼬아서 고정을 한 뒤 웨이브 링의 느낌을 살려 전체적으로 장식적 이미지로 연출을 하였다. 환타 오렌지색의 젊고 귀여우면서 여성의 지성적인 자태는 현대시각으로 비추어지는 답답함보다는 활발함에 비주얼을 두었다.

귀족지향적인 배경에 헤어연출의 이미지는 고급스러움과, 지성적 ,도시적인 아름다움을 로맨틱 룩 이미지로 작품에 연출 하였다.

[4-19]현대작품5의 일러스트와 제작내용

구 분	내 용
현대로맨틱스타일	지성적, 상냥함, 부드러움
색 상	레드오렌지, 레드 매니큐어
재료 및 도구	컬러, 스프레이, 꼬리빗, 핀셋, 아이론
표 현 기 법	헤어라인 쪽에서부터 꼬아서 고정해 놓고, 백 부분을 기준으로 전체 백꿈을 넣고 사이드 부분부터 네이프 부분을 솔빗으로 깨끗이 빗어서 인테리어 부분에 고정한다. 웨이브 장식으로 마무리 한다.
일 러 스 트	

[표4-20]현대작품사진

출처: 본인작성

정면	측면 1
	
측면 2	후면
	

〈그림4-20〉 현대작품 5 귀족지향주의배경의 로맨틱 스타일

V. 결 론

벨 에포크시대에 뿌띠부르주아의 성향유형별 배경인 정치적, 상업적, 대중적, 귀족 지향적, 자유주의적의 5가지 유형을 통한 라이프생활사에 특성을 분석하여 그들의 뷰티트렌드에 주도적 역할을 어떠한 흐름인 모티브적 메커니즘을 형성 하였는지 또한 사회 주축의 역량을 뷰티트렌드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어졌는지 현대 21세기 뿌띠부르주아 패션 헤어스타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연구의 목적은 근대 뿌띠부르주아에 헤어스타일을 특성 분석한 21세기 뿌띠부르주아 헤어디자인 트렌드 제안 연구를 뿌띠부르주아에 회화 속 표현 초상화를 통한 그들에 패션에서 보여 지는 문화 흐름을 통한 실루엣과 표현 장식성을 살펴 헤어스타일 디자인의 사회적 트렌드를 살펴보고 현대에 보여 지는 21세기 뿌띠부르주아의 미니멀한 헤어디자인을 제안 하였다.

본연구의 내용은 제1장 서론에서는 본연구의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해 논하였고 ,제2장에서는 뿌띠부르주아에 문헌적 고찰을 통한 발생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았고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배경에서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상업적, 대중적, 귀족 지향적, 자유주의적 유형의 배경으로 분석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미술 사조 특성인 실루엣, 표현 장식, 모티브를 이미지화한 도표를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21세기 뿌띠부르주아에 헤어디자인 트렌드 제안 연구를 작품화 하여 고급문화에서 대중문화로의 트렌드 감성을 제안 하였다.

본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 이론에 고찰과 뿌띠부르주아에 미술사 특징인 조형성에서 실루엣, 표현장식, 모티브를 분석하는데 국내외 문헌, 서적, 선행논문, 패션잡지, 인터넷 개인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89년 7월14일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부르주아에 혁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전 국민이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보유하기위한 넓은 의미의 혁명이다.

부르주아란 성안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는 법률가, 상공업자, 금융관리자, 의사

등 기원은 농민이었다. 그 외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이는 뿌띠부르주아라 한다.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발전은 많은 사회적 이슈를 낳았다. 과학발전과 기계 발달,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기차의 탄생, 전기의 발전으로 인한 가스등에 탄생은 인류 문화 변영에 발전을 안겨 주었다.

러시아발레단에 공연으로 인한 패션과 동양적 미의 흐름을 반영한 미술, 문학과 뷰티산업에의 영향 등 ,몽마르트언덕엔 혁명을 위한 사람들에 아지트인 역할을 한 장소가 그들에 화려한 카페문화를 만들고 빨간 풍차의 의미인 물랑루즈의 출현과 화려한 밤 문화는 시대의 퇴폐와 향락 속 율락의 문화를 즐기는 역할을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여성들에 사회로의 진출을 만들었다. 상공업 발전으로 공장의 노동력 인력에 부족은 여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의복에 기능성을 자아내게 되었다. 아르누보의 영향으로 여성성의 몸매를 강조한 S라인실루엣에서 H라인의 느슨하고 직선적인 실루엣과 아르데코영향을 받은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선에 남성성의 의복인 테일러드슈트가 유행하였다.

가부장적이고 세습적인 전통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의식의 개혁은 사회의 참정권과 남성과의 평등을 의미하기도 한 스포츠의 보급 또한 의복의 남성화를 과시하기도 했다.

화려하고 가장 추억의 기억으로 돌아가고픈 황금만능주의 시대인 벨 에포크시대 뿌띠부르주아의 상류층 여성들에 헤어스타일은 아르누보양식과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은 장식미술과 조형예술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었다. 곡선적인 실루엣과 풍부한 컬러 부풀림으로 인한 풍파두르 스타일은 부드럽게 치켜 올린 머리 형태에 느슨함과 높게 빚어 올린 형태의 깃스걸 스타일과 마살 웨이브스타일인 윈롤 형태는 여성에 아름다운 곡선적 아름다움에서 나온 헤어스타일의 발달이라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뿌띠부르주아의 발생으로 그들의 뷰티문화 흐름을 시대상과 사회상을 통한 미의 의식 변화를 라이프생활사와 미술사조의 장식미술과 조형예술에 표현에서 변화의 바람을 그 시대 뿌띠부르주아의 트렌드라고 표현하였다.

뿌띠부르주아의 트렌드는 선행연구와 문헌적 고찰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상업적, 대중적, 귀족 지향적, 자유주의적으로 범주화 하여 현대 뿌띠부르주아의 시각 표현으로 다시 재구성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매니시 스타일로 , 상업적으로는 소피스트케이티드 스타일로, 대중적으로는 모던스타일로 , 귀족지향적은 로맨틱 스타일로 ,자유주의는 보헤미안 스타일로 21세기 뿌띠부르주아의 헤어 디자인 스타일을 제안하였다.

자본주의 사회 발달과 변화에 흐름에서 보여주는 대표성인 다섯 가지 스타일의 흐름을 뿌띠부르주아에 성향별 배경의 유형으로 나누어 근대 뿌띠부르주아의 재현과 현대 21세기 뿌띠부르주아의 시각적 표현으로 미니멀한 헤어디자인으로 다시 재구성하였다. 오늘날 뿌띠부르주아들의 시각적 흐름인 표현과 그들의 언어, 문화, 예술, 음식 등 무수히 많은 표현 문화가 이미 근대 뿌띠부르주아에게서 보여 지는 모습의 한 의미가 아닌지를 다시금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H. H. 에너슨(1997), 『현대미술사』, 장화진 옮김, 서울 : 형설출판사
- 고용복(2009), 『사회학사전』, 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 곽형심 외(2003), 『미용문화사』, 서울 : 청구문화사
- 김복래(2004), 『파리혁명과 예술의 도시』, 서울 : 살림출판사
- 김인호(2006), 『백화점의 문화사, 근대의 탄생과 욕망의 시공간』, 서울 : 살림 지식 총서
- 김채운(1994), 『사회계층이란 무엇인가?』, 서울 : 민음사
- 다이에너 크레인(2000)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미석 옮김, 서울 : 한길사
- 도미니크 파커(1989), 『화장술의 역사』, 지현 옮김, 서울 : 시공사
- 라이트하임(1982), 『유럽현대사』, 유재건 옮김, 서울 : 백산서당
- 리처드 코슨(2010), 『Fashion in Hair : 헤어패션 5000』, 서울 : 동서문류
- 마리클로드쇼도느네외(2000), 『공화국과 시민』, 이영목 옮김, 서울 : 창해출판사
- 미셸보벨(1992), 『왕권의 몰락과 프랑스 혁명』, 최갑수 옮김, 서울 : 일월서각
- 민속홍 외(2006), 『세계문화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
- 박명진 외(2007), 『문화일상대중』, 서울 : 한나래 출판사
- 삐에르 부르디외(2006), 『구별 짓기 :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최종철 옮김, 서울 : 새물결 출판사
- 심부섭(2004), 『up&styling』, 서울 : 광문각
- 알란 스윙우드(1997), 『대중문화론의 원점』, 이광수 옮김, 서울 : 전예원
- 이세희(2004), 『프랑스혁명사 연구』, 부산 : 부산대학교 출판부
- 이영욱(1995), 『부르디외 : 문화자본과 아비투스』
- 이정옥(1987), 『서영복식사』, 서울 : 형설출판사
- 이지은(2005), 『부르주아의 유쾌한 사생활』, 서울, 지안출판사
- 임석진(2009), 『철학사전』, 서울 : 증원문화

정진수(2003), 『대중예술의 이해』, 서울 : 집문당
정홍숙(1995), 『근대복식 문화사』, 서울 : 교문사
질장티 외(2002),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신성림 옮김, 서울 : 창해출판
타타르키비츠(1999), 『미학의 기본 개념사』, 손휴주 옮김, 서울 : 미술문화
홍두승(1993), 『사회계층, 계급론』, 서울 : 다산출판사

2. 학위 논문

- 강정아(2010), 「아르누보 양식의 조형적 특징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태기(2008), 「사회 변혁기에 발생한 패션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기영(1994), 「현대복식에 나타난 아시아 에스닉 패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봉(2008), 「벨 에포크시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얼굴표현에 관한연구」,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석봉(2008), 「벨 에포크시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얼굴표현에 관한연구」,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2007), 「아르누보 양식을 이용한 사물 이미지 표현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덕(1995), 「현대패션에 나타난 최소 표현기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은선(2009), 「벨 에포크시대 패션 이미지에 따른 웨딩드레스 스타일링 연구」, 건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애(2005), 「발자크적 사실주의에 대한 연구: Le pere Gor Toot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연식(1996), 「벨 에포크시기의 아르누보 건축에 나타난 심미주의적 조형에 관한연구」,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북만경(2004), 「산업혁명기 프랑스 기술교육: 기술공예학교(Ecoles d'Art et Metiers)를 중심으로,1803-1914」,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선희(2007), 「드레이퍼리 의상의 미적특성과 패션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병훈(2006), 「우끼요에가 19세기 근대 유럽화가에 미친 영향 : 고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예린(1996), 「몰리에르작품에 나타난 신분상승 욕망 고찰 : 부르주아 계층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지(2003), 「아르데코 양식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2000), 「영화 TITANIC의 의상에 관한연구」, 중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순찬(1985), 「아르누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애(2007), 「20세기 아르누보 양식연구」,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홍숙(1998), 「아르누보, 아르데코 예술양식을 통해서 본 복식의 조형예술성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수연(1990), 「벨 에포크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채민정(2010), 「프랑스혁명과 여성의 역할」,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학술지

- 김은정, 「아르누보양식의 조형적 특성연구-르네탈리크, 에밀갈레, 루이스 컴포트 티파니, 빅토르 오르타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조형예술학회』, 제11권 11호, 조형예술학 연구, 2007, pp. 5-35.
- 김민자, 「1960년대 팝아트의 사조와 패션」, 『한국의류학회지』, 10권 1호, 학술저널, 1986, pp. 69-84.
- 민주식, 「세기말 예술의 모험」, 『예술연구』, 제4권, 신라대학교 예술연구소, 1999, pp. 5-19.
- 박연식 외, 「벨 에포크시기의 건축에 나타난 심미주의적 경향에 관한 연구」, 제15권2호, 『대한건축학회 발표논문집』, 1995, 대한 건축학회, pp.223-228.
- 서이자, 「19세기 말 프랑스 노동운동에서 성<gender>과 계급<class>」, 『한국프랑스사 연구』, 학술논문 제5호, , 2001, pp. 177-205.
- 양재천, 「Alphonse Mucha의 조형세계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논문집』 교육농촌, 제17권, 1997, pp. 269-322.
- 이순홍 외,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양식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연구」, 『한국복식학회지』, 학술논문, 제44권 4호, , 1999, pp. 235-247.
- 이미혜, 「19세기 프랑스 문학 독자」, 『프랑스어문교육』, 제18집, 학술논문, 2004, pp. 577-608.
- 이유경 외, 「19세기 여성Sports Wear 변천에 관한 연구」, 제9권 1호, 『한국 의상 디자인 학회지』, 학술논문, 2007, pp. 203-219.
- 정홍숙 외,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복식문화에 미친 인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 학회지』, 학술논문, 제50권 4호, , 2000, pp. 21-36.

- 전용일, 「Rene Lalique의 금속공예」, 『조형농촌』 국민대학교 환경디자인 연구 소, 제13집, 1994, pp. 277-306.
- 최향란, 「19세기 중엽 프랑스 백화점의 역사」, 『프랑스사연구』, 제16호, 한국프랑스사학회, 2007, pp.43-66.
- 최경옥 외,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Ⅱ」, 『한국미용학회지』, 제19권 1호, 2013, pp. 34-45.
- 한택수, 「황금시대의 보헤미안」, 제18집, 『프랑스어문교육교육』, 한국프랑스어문 교육학회, 2004, pp.693-712

4. 국외문헌

- Beder, Vienne(1985), *Art Nouveau Jewelry*, New York : E. P. Dutton.
- Brockman, Helen, L.(2006), *The Theory of Design*, NY : John Wiley & Son, Inc.
- Fischer, Gayle. V.(2001), *Pantaloon and Power*, Ohio : Kent State University Press.
- Gershoy, L.(2007), *The French Revolution 1789-1799 Studies*, London : New York, S, 3.
- Laver, James(1998), *Costume & Fashion*, New York : Thomas and Hudson
- Mulvey, Kate, and Melissa Richard(2000), *Decades of beauty*, London : hamlyn.
- Leroy, Gerald, and Julie Bertrand-Sabianic(1998), *La Vie litteraire a la Belle Epoque*, Paris: puf.
- Roussard, Andre(1996), *Foreword to Style Buisson & Christian parison:* Paris Montmartre: A Mecca of Modern Art, Paris: Edition Pierre Terrail.
- Schwartz, Vanessa. R.(1998), *Spectacular Realities : Early Mass Culture in Fin-de-siecle Paris*, CA :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5. 기타 자료

네이버 상식사전, 지식엔진 연구소

위키백과 카페콩세트, ko.wikipedia.org

네이버 dopedia 두산백과, <http://100.never.com>

고전해설 zlp 지식을 만드는 지식, <http://terms.naver.com>

한국사전연구소 미술대사전(용어편)(2009), <http://terms.naver.com>

ABSTRACT

A Study on Hair Design Based on Characterization of Hair Style from the Petit Bourgeois of Belle Époque

Kang, Su-hee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imilar hair design from Belle Époque, targeting Petit Bourgeois from the perspective of a researcher whose study i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hair style from Petit Bourgeois of Belle Époque.

The European society was based on both capitalism and industrialism between the 19th and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fter the Renaissance era, capitalism developed from the end of Middle Ages until the end of 18th century, and industrial capitalism transformed into financial industrialism from 1850 to today.

The development of commerce with the help of industrial revolution allowed the factories to vitalize machines that produced ready-made clothes in massive numbers. It also signifies women's liberation from corsets and patriarchal tradition, while women entered the labor market. The change in consciousness is motivated by the enlightenment caused by the French revolution; thus, it would be precise to claim that 21st century Petit

Bourgeois' capital and their wealth symbolizes certain life patterns which have created the frameworks of contemporary Petit Bourgeois.

Belle Époque refers to a period of "beautiful era" or "good era" where prosperity was characterized by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before the First World War. It also depicts an era where dance, art, costumes, ballet, sculpture, poetry, music and theater evolved in harmon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perfection of hair style through historical study of Petit Bourgeois' hair design and style from Belle Époque, where the First World War influenced the French in various ways; women began to take parts in the society and their liberation from corsets signified physical freedom and change in their consciousness that had roots in literature and artistic express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ntemporary fashion and hair image through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people's fashion and hair accessories that have been expressed in paintings. The methods of this study and literary sources as well as references have been gathered through literary data, scholarly dissertations, books, history of beauty and arts, periodicals, internet sources, Naver Encyclopedia, Philosophy Encyclopedia, and etc. The images and pictures used to analyze Petit Bourgeois' hairstyle, fashion, and modeling and pattern characteristics have been compiled through international literature and fashion magazines, internet, Estetica, Samsung Design Net, personal blogs, Style.com, and etc.

The following a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Chapter One examines the objective, research content, and the methods of the study. Chapter Two looks into characteristics of people's preference based on their background and social level through different types of Petit Bourgeois' life style. It also covers the birth of French Revolution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time that sparked the rise of Petit Bourgeois through literary investigation. Chapter Three analyzes characteristics of Petit Bourgeois' hair design through the patterns of art history and the influence from the new art. It also compares and analyzes Petit Bourgeois' fashion and hairstyle from the paintings to the

contemporary image and style. Chapter Four suggests examples of Petit Bourgeois' propense hairstyle study based on the research from Chapter two, where women's social participation and activity gave birth and rise to the beauty industry. As a result, ten pieces of Petit Bourgeois' hairstyle suggestions have been created while applying and reanalyzing the examples of hair design from this study.

In actuality, there were difficulties applying the hair style on a human model, thus the hair design was done on a mannequin, and finally, based on the facial features of a woman in early twenties, hair and images were created by computer works.

The researcher desires that future hair research would contribute to the perfection of fundamental framework in an ever-changing hair design style, so that it would become a creative motive for the contemporary hair images and changes, as well 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21st century beauty industry.

【Key Words】 Petit Bourgeois, French Revolution, Belle Epoque, Hair Design, Liberation of Women